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C
뱅크 오브 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3 제 6781호

Wednesday, October 18, 2023 A

“이스라엘군 병원 공습, 최소 500명 사망” (가자지구)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부상한 가자지구 주민



병원에 모인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팔' 수반, 사흘 애도기간 선포 바이든과 회동 취소

이스라엘군이 17일(현지시간) 오후 가자지구의 한 병원을 공습해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BBC와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가자시대의 알아흘리 아랍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졌다.

보건부는 “수백명이 다치고 수백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2008년 이후 가장 피해가 큰 이스라엘군의 공습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지 하레츠는 보도했다.

특히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방문을 하루 앞두고 대형 악재가 터졌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이 “병원 대학살”이라고 비난하며 사흘 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아바스 수반은 18일 요르단 암만에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동도

취소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하마스는 이번 공습이 “대량학살”이라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군(IDF)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 다니엘 하加里 소장은 “최근 공습에서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해 현장 지휘부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로부터 가짜 뉴스가 종종 나온다”고 덧붙였다. 하레츠는 전했다.

소수계 기업 6000개 정부 혜택 상실 위기

한인 등 소수계 운영 기업에 연방정부 조달사업 일부를 할당해주는 프로그램(8(a))과 관련, 법원이 혜택 기준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온 한인 운영 업체 등 수천개에 이르는 소수계 중소기업은 차별 또는 사회적 불이익을 입게 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됐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16일 “최근 연방 법원 테네시주 지법이 소수계·여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8(a))은 수정헌법 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5조는 적법한 절차 또는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논란은 테네시주 그린빌 지역에서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트라 서비스사가 지난 2020년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연방 농

무부(US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백인 여성 대표가 운영하는 울트라 서비스는 이 소송에서 “USDA의 조달 사업을 수주했지만 이후 이 사업이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면서 자격을 잃게 됐다”며

“이는 역차별을 조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인을 비롯한 흑인, 히스패닉

계 등이 운영하는 소수계 중소기업들은 연방 정부 조달사업 수주 시 우대 프로그램을 근거로 소유주가 소수 민족이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우대 프로그램이 차별의 요소가 있다며 울트라 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는 “SBA 등은 소유주가 단지 소수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업체가 사회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영기 기자
▶ 5면 ‘정부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내 집 장만 쉽게, 10억불 지원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백악관은 16일 미국인들의 집 장만을 돕기 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별채(ADU)에서의 예상 임대 소득을 포함할 수 있게 대출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도시개발부(HUD), 연방주택청(FHA) 등이 참여하는 이번 주택 구

매 지원 정책 패키지에는 또 ADU를 콘도처럼 별도의 주택으로 구매하거나 기존의 주택 구조에 ADU를 추가해 건설할 때도 저렴한 주택담보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시니어나 세대 간 가족들이 혜택을 받아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3일 개편 뉴

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부터 ADU를 콘도처럼 따로 거래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의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운페이먼트 지원도 확대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약 1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및 중산

층 세대가 첫 주택 구매를 도울 수 있도록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방 농무부(USDA)의 경우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9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직접 주택용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주택 수리자금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재정지원 정책도 내놨다. HUD는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을 가진 소유주

와 주택 구매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03(k) 재활 모기지 보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FHA는 대출자가 개보수할 수 있는 자금을 쉽게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 정책도 완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인들의 집 장만 기회가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다는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장영기 기자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워싱턴 중일일보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무료 상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s://www.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군 “북, 하마스에 무기·전술 전수…대남 공격에 활용 가능성”

군 당국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상황 평가 결과 하마스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전술 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이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무기 거래의 정황으로 대전차 무기를 꼽았다. 하마스가 사용한 F-7로 불리는 대전차로켓포는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122mm 방사포탄도 북한 연루설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한글로 ‘방-122’라고 표기된 점이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을 뜻한다는 것이다.

또 하마스의 이번 기습은 북한이 그동안 강조해 온 전술 교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군 당국은 분석했다. ▶휴일 새벽 기습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로 로켓포 방어체계인 아이언돔 무력화 ▶드론 공격으로 각종 감시·통신·사격 통제 체계 파괴 후 침투 등이 그것이다.

군 당국은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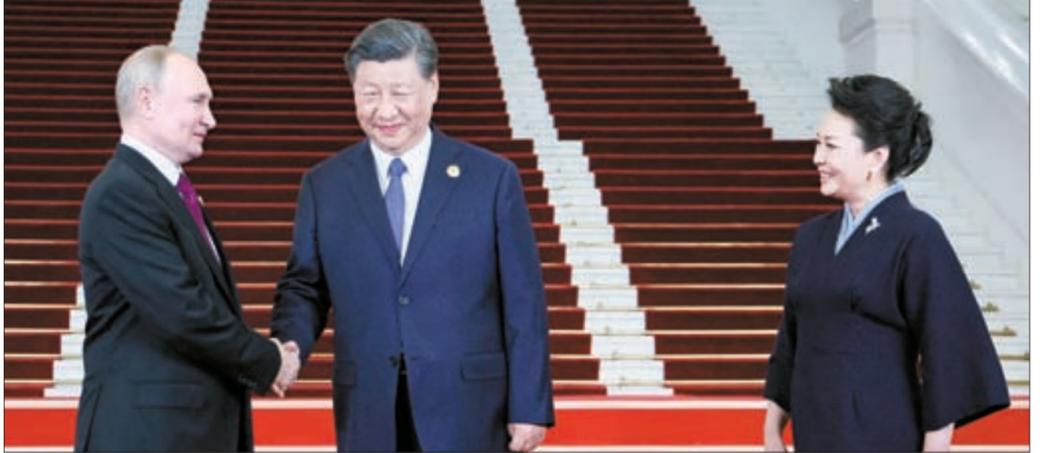
하마스의 침투 방식도 북한이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우리 전방 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북한은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공중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6년 12월엔 패러글라이더 등을 활용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남측 기업의 생산 설비를 무단 가동해 패러글라이더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북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패러글라이더를 생산하던 한 기업이 완제품과 원부자재 상당량을 두고 왔다.

소식통들은 “레이저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북한이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나 생화학 무기 살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상당수 로켓포를 요격해 피해를 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기경보 체계에 허점이 발생해 하마스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도권권을 겨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300여 문을 집중 감시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대북 감시 범위를 제약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운용이 제한돼 경도나 산의 후사면에 숨은 북한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포착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을 만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른쪽은 시 주석의 부인 평리위안 여사. 시 주석은 18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중·러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동 사태 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베이징서 만난 시진핑·푸틴… 오늘 중·러 정상회담

‘제3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17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카시모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칠레·세르비아·헝가리 등 8개국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날 환영 만찬을 주최하고 18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개막식을 연다.

‘고품질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며 손잡고 공동발전과 번영을 실현하자’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참여국을 채무 합정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의식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대신 ‘작고 아름답게(小而美)’로 기조를 바꿨다. 이안 총(莊嘉穎) 싱가포르국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경제 부진으로 중국의 투자 여력이 약해지면서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보다 통신 인프라 등으로 전환해 투

자 리스크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도 이번 포럼의 키워드다. 류춘성(劉春生) 중앙재경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팔 총돌 등으로 일대일로 협력이 지역 내 평화에 기여하는 상징적 의미가 커졌다”고 했다.

하지만 동력이 약화된 일대일로 정책의 상황을 반영하는 듯 이번 포럼의 참가국 규모는 예년보다 줄었다. 중국 외교부는 포럼 당일까지 참가 정상 숫자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유럽연합(EU) 중에서는 헝가리 총리만 참석이 확인됐다. 1, 2회 모두 참석했던 체코·그리스·스위스·이탈리아 등이 불참했다. 1회 포럼엔 29개국, 2회엔 38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올해 초점은 일대일로가 아닌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러 양자회담에 쏠리고 있다. 시 주석

은 18일 푸틴 대통령과 확대 및 단독 회담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앞서 지난 16일 시리아·이란·팔레스타인·이집트 정상과 각각 연쇄 전화 통화를 갖고 이-팔 총돌 사태를 논의했다.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의 부대 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다. 조 장관은 18일 ‘일대일로 정상포럼’ 부대 행사인 ‘해양협력’ 부문 분과 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중국의 광역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시 주석이 2013년 9월 카자흐스탄과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일대일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각각 제안한 이후 10주년을 맞았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지난 11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로부터 뺀 로켓들. 이 중엔 북한제로 보이는 F-7 대전차 로켓포(원 안)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수도권 상공 출격 한 미군 B-52 - 처음으로 국내 기지 착륙도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식 축하비행을 하고 있다. 핵무장이 가능한 B-52는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000km에 달한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B-52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 2023’ 축하비행을 마친 뒤 충북 청주 공군 기지에 착륙했다.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공군과 연합훈련을 한 적은 많지만,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워싱턴 날씨 (°F)

19일(목)	71-55	☁	22일(일)	62-48	☁
20일(금)	71-57	☁	23일(월)	60-43	☀
21일(토)	64-52	☁	24일(화)	61-43	☀

10월 18일(수) 66~4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½,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Under Contract, 유닛 마감 End Uni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4, 차고3, 1에이커, 멋진 플로리달!
---	--	---

메디케어 가입 및 플랜 변경

2023년 10월 15일 ~ 12월 7일 까지

-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
- 파트 A & B, C, D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어 (A & B) + 메디케이드

* 치과보험, 안과보험 등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세요.

무료 상담 & 신청

로리 문 703.895.7648

린다리 443.515.8522

버지니아 (VA)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703.865.8788

메릴랜드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410.995.8074

www.unihealthplan.com
UNI Medicare and Health Insurance Agency

2023 OM·열린문 선교대회 열린다

오는 24일 부터
열린문장로교회에서

국제 오엠(Operation Mobilization)과 함께 한국과 해외 한인 교회들이 협력하는 한국 오엠(OM KOREA), 오엠한인국제선교회가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담임목사) 초청으로 오엠·열린문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국제 오엠은 2023년 현재 147 개국에서 5,400여 명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초교파적 국제 선교 단체로서 선교에 헌신된 일꾼들을 동원, 훈련, 파송하여 현지 선교를 감당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북미 오엠 선교회 이사장을 맡는 등 그동안 오엠선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에 동참해 온 김용훈 담임목사는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이들 단체들과 함께 복음 사역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기에,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강사로는 24일(화)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 조은테 선교사(OMKOREA 대표), 25일(수) 김두식 목사(부산 말씀교회), 김일권 선교사(OM KWM 대표), 26일(목) 박정근 목사(거제고현교회), 김동훈 선교사(오엠 선교사) 등이 나선다.

특히 권준목사는 미주내 잘 알려진 강사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미주 대표 등을 역임하며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돼라’ 등의 저서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산 말씀 교회 김두식 목사는 고신 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겸임) 및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스쿨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선교적 교회로 알려진 ‘거제 고현 교회’를 담임 하는 박정근 목사는, 한국 오엠 중앙이사 UPMA(미전도종족선교연대)이사장으로 선교동원설교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집회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703-318-8970 >주소: 3001 Centreville Rd Herndon VA, https://opendoorpc.org/ 김윤미 기자

“향수 부르는 가곡의 향연”

이화여대 ‘가을음악회’ 성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워싱턴 DC지회(회장 최미나) 주최 ‘가을음악회’가 지난 14일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음악회는 피바디 음대 박사 출신 플루티스트 최지영과 바이올리니스트 최성희, 오르가니스트 김정연, 소프라노 장의정과 박나애, 피아니스트 김윤정, 이보라씨가 참여해 파가니니, 슈베르트, 푸치니, 모차르트, 바흐, 드뷔시, 볼프 등 바로크 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

간으로 마련됐다.

더불어 연주곡과 작곡가에 관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진행돼 청중과의 교감으로 클래식을 친근하게 했다.

두 소프라노의 향수를 부르는 한국가곡 앵콜무대에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가을 음악회’의 매미를 장식했다.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워싱턴 DC 지부는 오는 12월 16일, 총회 겸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기획중에 있다.

>문의: admin@ewhadccchapter.org 김윤미 기자



“주저 말고 여행 도전할 때”

스페인 여행 세미나 열려

곽노은 여행가의 ‘유럽여행(스페인)과 크루즈 여행 저렴하게 즐기는 방법’ 세미나가 지난 17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영렬 목사)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와싱턴북지상조회(회장 배용웅)와 중앙시니어센터(디렉터 이혜성) 초청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곽노은 여행가는 30년 이상 유럽 자유여행을 하며 체득한 실속 정보와 더불어 여행사 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플랜 등을 공유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곽 여행가는 “세상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볼 것들이 많다”면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싶다면 70-80세가 넘었어도 주저하지 말고 스페인 여행을 떠나보라”고 권했다.



이날 세미나는 ‘6명이 2주 간 스페인 여행떠나기’를 주제로 저렴한 왕복항공권 구매 사이트를 비롯해 900달러 미만으로 4성급 호텔 및 항공권, 렌트카가 포함된 인디펜던트 패키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풀보험 정보, 렌트카 이용 시 주의점, 저렴한 핸드폰 사용법 등 여행 필수 정보들이 제공됐다.

>문의: 571-422-6462(곽노은) nounkwak@yahoo.com 김윤미 기자



GCF 워싱턴, 밀알선교단에 3천달러 기탁

글로벌 어린이 재단 워싱턴 지부(회장 이미미) 회원들이 지난 14일 메릴랜드 락빌 소재 밀알 선교단에서 점심 봉사를 진행했다. 글로벌 재단 측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봉사와 더불어 지난 7월 말 개최한 자선 골프대회 수익의 일부인 3000달러도 기부했다. 사진에서 이미미 회장이 정택석 목사에게 기탁금을 전달하고 있다.

뒤늦은 VA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 20-22일

버지니아 정치권이 선거를 앞 두고 줄속 합의에 의해 오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 기간을 설정했다.

버지니아에서 연례 행사처럼 이어져 왔던 8월초 판매세 면제 기간이 올해에는 정치권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관심 때문에 한시 법안이 연장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감세 문제로 논란을 이어가다가 한시법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망각했던 것이다.

새로 발효된 임시법률에 의하면 100달러 미만의 신발과 의류, 20달러 미만의 학용품 구매시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화장품과 보석류, 의류 약제사리, 우산, 마스크, 헬멧, 댄스 용품, 스포츠 용품 등은 세금이 부과된다. 2500달러 미만의 에너지 스타 제품과 워터센스 절수 제품 등도 판매세가 면제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절수 샤워헤드, 토일렛 등이 해당된다.

발전기(1천달러 미만)와 전기톱(350달러 미만), 전기톱 약제사리(60달러 미

만) 등 허리케인 대비 물품도 면제된다. 버지니아는 매년 8월 초순중 백투스쿨 기간에 맞춰 학용품과 의류, 에너지 절약 전자제품, 방수 제품, 허리케인 대비 용품 등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판매세 면제 법률을 한시 법률로써 일정 기간을 경과할 경우 갱신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가장 최근의 판매세 면제 법률은 7월1일 종료됐으나 경과법률과 연장을 위한 임시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판매세 면제 기간 설정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김옥채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오미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www.davidmarksl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줄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미국 내 유대인 및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안 대상은 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증오범죄의 타겟이 됐던 아시아인에 대한 범죄는 33% 감소했다.

연방수사국(FBI)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범죄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만1643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흑인에 대한 범죄가 34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반 유대인 1124건 ▶ 반 남자 동성애 1077건 ▶ 반 백인 966건 ▶ 반 히스패닉 738건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모두 499건으로 집계돼 2021년(753건)보다 크게 줄었다. 반면 유대인에 대한 범죄는 2021년 824건에서 지난해 1천건 이상으로 늘었다. 반이슬람 범죄는 158건을 기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이 데이터에 따르면 전반적 증오범죄의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내가 반아시아 혐오에 맞서기 위한 법안에 설명한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증오로 인한 폭력을 중식하려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증오와 편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가 자행한 사악한 테러로 폭력을 격정하는 미국인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 성과 역대 최고, 현장 계약만 1940만불

OC에서 개최된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한상대회)가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성과면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폐막식 후 대회 결산에 나선 한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1개국에서 7825명의 기업인과 15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35개 기업, 지자체에서 650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투자 상담 건수는 1만 7183건에 달했다.

대회 기간 중 상담 규모는 5억7260만 달러였으며 현장 계약액은 19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체결된 업무협약(MOU)을 살펴보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이경철, 이하 미주총연)가 한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 소상공인 미국진출 지원 및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소상공인 미국 진출 지원 연계 및 바이어 발굴 등 판로개척 지원, 관련 행사 공동 개최, 정보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주총연은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과도 경제교류, 특산물 미국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전문업체 씨어스, 건물재난 방재전문업체 로제타테크, 거주한미식품상협회(KAGRO)와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함께 포즈를 취했다. [KAGRO 제공]



전기차 배터리 제조전문업체 씨어스, 건물재난 방재전문업체 로제타테크, 거주한미식품상협회(KAGRO)와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함께 포즈를 취했다. [KAGRO 제공]

MOU를 체결했다. OC한인상공회의소(회장 노상일)는 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 및 양산상공회의소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 회장 김중철)는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협동조합(ICTC)과 MOU 체결을 통해 한국 상품의 미주시장 홍보를 돕고 협회 업소들에게 최신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미국수출입협회(AAEI, 회장 유진 레이니 주니어)가 한국수입협회(김병관 회장)와 한미 무역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은 것을 비롯해 미국 중소기업개발센터(SBDC)

는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와 경남지역 기업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풀러턴시(시장 프레드 정)는 제주도(도지사 오영훈)와 제주산 수출상품 미국 시장 유통 확대 및 수출입 기업 정보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천안시(시장 박상돈)도 실리온밸리의 씨야, 에이앤케이, 코싸인온 등 3개 글로벌 벤처기업과 디지털 인재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한상대회 사상 처음으로 참가 기업들 간의 업무협약도 체결돼 화제를 모았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전문업체 씨어스

(대표 김기욱)와 건물재난 방재전문업체 로제타테크(대표 조영진), 블루애플 자산운용주식회사 자명 회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비즈니스 계약으로는 북남미 유통 및 마케팅 기업인 KYGLOBAL과 조미 김 개발 생산업체 한울식품이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및 MOU를 체결한 것을 비롯해 셀트리온헬스케어 미국 약국체인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와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K비즈 파빌리온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이 549건, 86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한인타운 노숙자 민원 석달간 ‘1000건’

<7-9월 3분기>

전체 4위, 다운타운보다 많아
시 전역서 2만1015건 접수

LA한인타운 내 홈리스 텐트촌 관련 민원이 올해 3분기(7~9월) 기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 7~9월 3개월 동안 LA 민원서비스 ‘MyLA311’에 접수된 민원은 총 36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별로 봤을 때 지난 2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직전 분기인 2분기(4~6월)보다 6.5% 증가했다. 그중 홈리스 텐트촌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2만1015건에 달

했다. 지난 2년 동안 분기별 집계치 가운데 최대로 2분기보다는 20% 늘었다.

매체는 “캐런 베스 LA시장이 주력하는 홈리스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이니셔티브’가 알려짐에 따라 홈리스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로 인해 과거보다 홈리스 관련 민원 신고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한인타운은 석 달 동안 모두 984건이 접수돼 LA시에서 4번째로 민원이 많았다. 민원 최다 지역은 웨스트레이크로 1600건이 접수됐고, 그 뒤로 노스할리우드(1355건), 할리우드(1355건), 한인타운, 다운

타운(952건), 베니스(665건)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한편 MyLA311 민원 신고의 절반가량(47%)은 집앞에 버려진 오래된 소파나 책상 등 대형 쓰레기(bulky-item) 수거에 관한 것이었다. 올 3분기에 17만 1000건이 접수됐으며 2분기(15만6000건)보다 10% 증가했다. 이 또한 한인타운은 4번째로 민원 신고가 많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3656건이 접수됐다.

그밖에 밴나이스에서 4702건이 접수돼 최다 민원 지역으로 드러났고 이어 할리우드(4311건), 샌피드로(4134건) 등의 순이었다. 또 나서 제거 민원은 전체

민원의 5분의 1(22%)을 차지했다.

올 3분기 접수된 나서 제거 요청 민원은 약 8만 건으로, 2분기(8만6000건)보다 소폭 줄었다. 또한 해당 민원이 9만5000건에 육박했던 2020년도 말과 2021년 초반보다 감소했다.

대신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 민원은 계속 증가 추세다. 올해 1분기 2만5000건이던 것이 3분기 2만7800건으로 늘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사우스LA 지역의 브로드웨이-맨체스터로 790건을 기록했고, 이어 밴나이스와 노스할리우드에서 764건과 748건이 각각 접수됐다.

LA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 보상금을 제공하는 ‘팁 프로그램(tip program)’도 운영하고 있다. 장수아 기자

VIRGINIA MEDICAID를 상실해서 건강 플랜이 필요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건강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 보조로, 월 \$10 미만 플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달 1일부터 보장받으세요.

HealthCare.gov

1-800-318-2596

미 보건복지부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한국적 향기 담아 향수 시장에서 돌풍

‘엘로리아’ 박수민 공동창업자

한인 커플이 한국적인 향기를 앞세워 세계 향수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향수 브랜드 ‘엘로리아(Elorea)’는 태극기의 색, 건곤감리가 새겨진 향수병과 한국 향료를 사용한 한국적인 향수로 뉴욕타임스, 엘르, 포브스 등 주류 언론에 소개되고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신생 향수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민 엘로리아 공동창업자는 “지난 2018년 한국 방문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향수 브랜드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남편과 함께 향수 브랜드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한국 서사와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 가장 한국적인 면을 향수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엘로리아라는 이름도 한국의 요소라는 뜻을 담고 있는 요소(Element)와 한국



(Korea)의 합성어”라고 설명했다. 엘로리아는 지난해 온라인으로 먼저 론칭한 뒤 지난 6월 뉴욕 맨해튼에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다.

박 공동창업자는 “이번 브랜드 론칭을 통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며 “우리 조상들은 사향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한 향료를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1872년 서양에서 알코올이 섞인 향수 수입이 시작되면서 우리



박수민 엘로리아 공동창업자는 한국적인 향과 정서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오른쪽 작은 사진은 엘로리아의 ‘포가튼 워즈(Forgotten Words)’ 컬렉션. [박수민 공동창업자 제공]

의 고유 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잇힌 한국의 고유 향을 부활시키고 현대화로 재해석한 것이 엘로리아다”라며 “현재 우리 브랜드는 깻잎, 오미자, 녹차 등 한국 향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덧붙였다.

엘로리아는 현재 2개의 향수 컬렉션으로 총 8종류의 젠더리스 향을 선보이고 있으며 양초와 핸드 케어 제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엘로리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도 극찬한 바 있다. 지난달 뉴욕에서 개최된 한가위 페스티벌에 참석한 김 여사는 페스티벌 내 마련된 엘로리아 부스를 방문해 시트러스와 동백 향이 담긴 파이어(리) 향수를 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공동창업자는 “브랜드의 베스트 셀러는 첫 컬렉션이었던 건곤감리다”라며 “그중 보성 녹차와 버가못, 핑크 페퍼 향이 들어간 헤븐(건)이 따뜻하면서도 포근한 향을 남겨 가을 날씨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전했다. 향수는 웹사이트(Elorea.com)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한편, 박수민 공동창업자는 10세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와 2011년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심리학, 사진 기술을 전공했으며 지난 10년간 사진작가 및 예술감독으로 활동해왔다. 이후 지난 2018년 남편과 결혼 후 향수 브랜드를 창업했다. 현재 엘로리아는 약 12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김예진 기자



주택 신규 공급 줄면서 낮은 주택 수리비 급등

주택 평균 연식 41년

미국의 주택 신규 공급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주택 연식이 늘어나면서 관련 수리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방센서스국 조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 주택의 평균 건축연도는 1982년으로, 평균 연식은 41년에 이른다.

1950년대 이전 건설된 주택도 전체 주택의 17%에 달하는데 이들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연평균 수리비용은 1800달러가 넘는다.

낮은 주택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연평균 3900달러를 지출했으며, 10년 이상된 경우에는 1500달러로 줄었다.

주택연식과 상관없이 주택 보수 비용 지출의 47%는 내부수리 공사였다.

1950년 이전 건설 주택은 이 비율이 59%로 높아졌다.

낮은 주택의 가장 일반적인 내부수리공사는 배관, 바닥, 드라이월, 판넬, 천정, 운수장치 등이었다. 외부수리공사의 경우 창문과 정문, 지붕, 포치, 데크, 파티오, 테라스 등의 교체였다.

조경공사 비율은 21%로 높지 않았다.

미국 주택의 평균 실내면적이 1500스퀘어피트인데 비해 1950년 이전 주택은 1290스퀘어피트로 적었다. 1950년 이전 주택 소유주의 중간연령은 58세였다.

‘K-스타트업’ 뉴욕서도 기지개

미국서 활동하는 ‘K-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뉴욕 맨해튼의 벡오브브라메리카(BofA) 파빌리온 센터에 총출동했다. 창업자, 투자자, 벤처 캐피탈(VC) 관계자, 월가의 금융인들과 예비 창업인 약 500명이 한데 모인 것이다.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노움(Noom),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Primer Sazze Partners), 더밀크(The Milk),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코리아 스타

트업 포럼 뉴욕 2023(Korea Startup Forum New York 2023)’이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스타트업 창립자들의 피칭이었다.

시드 머니 펀딩이 필요하거나 시리즈 A 정도의 시작 단계에 있는 초기 스타트업 32여 개의 최고경영자(CEO) 혹은 창립자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4분 발표에 나섰다.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에서 피칭에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매우 우수한 발표와 사업계획을 보여줬다고 한 관계



자는 전했다.

행사 주최 측은 미국 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와 서부의 스타트업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수한 사업체의 공모와 피

칭 지원을 받았다. 투자자로는 약 50곳의 VC, 투자기업, 대기업 등이 참석했다. 서부의 한국계 벤처캐피탈 ‘큰손’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가 참석했고, 엔젤 투자자들도 모였다. 대기업도 뛰어들었다. 이날 피칭에는 SK USA, 한화, 코오롱,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피칭에 나선 스타트업 발표 이후 실제로 투자를 논의하는 회의가 대거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칭에 참여한 한 대기업은 피칭 후 4개의 미팅을 연속적으로 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투자자들과 창업자들의 미팅은 이어졌다.

▶ 1면 ‘정부 혜택’에서 이어집니다.

이 판결은 파장이 컸다. 소수계 기업들은 판결 직후 조달사업 수주 시 차별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실제 사례와 내용 등을 SBA의 가이드라인과 육하

원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JC는 “SBA는 판결 이후 수천 개에 이르는 소수계 우대 프로그램 수혜 기업의 자격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소수계 운영 기업들은 우대 해

택을 상실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SBA에 따르면 현재 소수계 우대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6000여개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매년 48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한편, 8(a)이라 불리는 소수계·여

성 기업 육성 프로그램은 소유주가 소수 민족 출신으로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소수계 또는 여성이 회사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하며 2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장열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결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움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음자 · 상업음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이락조) 웨일리노래방 뉴타운홈

미라조 물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홈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오토론 이자율 7.4%, 15년 내 최고

지난해보다 1.7%p나 치솟아
다운페이 늘려 이자부담 상쇄

신차 구매를 위해 최근 터스틴 지역 자동차 딜러를 방문한 한인 A씨는 기본 6%대에서 시작하는 이자율에 경악했다. 지난해 자동차에 붙은 프리미엄이 부담스러워 올해까지 구매를 미뤘던 그는 최근 차값은 내렸지만 급등한 이자율로 비용이 늘어나 결국 작년과 비슷한 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그는 “이럴 것 같았으면 차를 일찍 구매해 잘 타고 다녔을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토론 이자율이 15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터스틴 지역 한 딜러를 방문한 구매자가 신차를 살펴보고 있다. 박낙희 기자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대출(오토론) 이자율 또한 15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보 웹사이트 에드먼즈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 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차 오토론 이자율은 평균 7.4%로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이율율에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선 1.7%포인트 증가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월 페이먼트 비용도 급등했다. 신차 기준 구매자들의 월평균 페이먼트는 736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의 703달러에서 33달러 늘어났다.

이는 고리 대출에 신차 가격 상승 추

세가 맞물린 결과다. 운전자들이 최근 세단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선호하는 데다, 최근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으로 권장소매가격(MSRP)을 대체로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월 페이먼트가 1000달러 이상인 대출자의 비율은 3분기 17.5%에 달했다. SUV 소유주로 대상을 좁혔을 때 이 비율이 70%까지 늘어났다.

이같이 높은 이자율에도 시장에서 신차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 당분간 금전적 부담 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팬데믹 당시 공급망 문제로 인한 가격 인상에 구매를 망설였던 운전자들이 최근 자동차를 활발히 구매하고 있

다는 설명이다.

또 다수의 전문가가 연내 혹은 이른 시일 안에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매자들은 향후 이자율이 더 높아지기 전에 서둘러 구매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데이터 분석업체 카구루의 케빈 로버츠 디렉터는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내리길 기다리는 동안 이자율은 크게 뛰었다”며 “기다릴수록 페이먼트 규모가 늘어난 운전자들은 오토론 이자 부담에도 당장 신차 구매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텐자동차의 제이 장 부사장은 “신차 기준으로 업계의 오토론 이자율은 스페셜 오퍼가 5.99%부터 시작”이라

며 “크레딧점수와 기간에 따라 7%와 8%까지 훌쩍 오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 높은 이자율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뉴노멀이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금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인 운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오토론을 받기로 했다면 딜러뿐만 아니라 거래 중인 은행, 크레딧유니온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대출 옵션을 확인하는 게 좋다. 수년 전과 같은 ‘제로 이자’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크레딧 점수를 잘 관리하면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리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갚아야 할 총금액이 낮으면 이자도 그만큼 적게 낸다는 것이다. 장 부사장은 “여유가 있다면 차량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금액을 늘릴 것을 추천한다”며 “다운페이먼트를 1000달러에서 1~2만 달러 수준으로 늘리면 그만큼 이자율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줄고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이용한 전기차 구매 또는 타주에서 할인 중인 매물 구매 후 거주지로 이송 등이 자동차 구매 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우훈식 기자

브리프

미국 서부해상 운임 5% 상승

지난달 선박을 이용해 한국에서 미국 서부로 수출할 때 드는 운송비가 한달 전보다 5% 올랐다.

한국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9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서부해상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3100달러로 한 달 전보다 5.0% 올랐다.

지난 5월(6.1%)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미국 동부(1.1%), 유럽연합(EU·4.4%) 등 원거리 항로도 오름세를 보였다.

해상 수입 운송비는 EU(6.7%), 미국 동부(4.1%) 등이 오르고 미국 서부(-4.0%), 중국(-3.1%) 등이 내렸다. 항공기를 이용할 때 드는 수입 운송비의 경우 미국 등의 항로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물의 1kg당 운송비용은 평균 3.88달러로 한 달 전보다 12.4% 하락했다.

정부 비트코인 50억불 보유

정부가 약 20만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유자 중 하나이지만 가격 등락에는 관심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사이버 범죄자들이나 다크넷 시장에서 압수한 것들로, 법무부나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있다. 이 비트코인은 하드웨어 지갑으로 알려진 암호화된 저장장치에 오프라인 형태로 보관돼 있다. 미정부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1조 달러 규모의 디지털 자산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자들은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 보유자들과 달리 미정부는 비트코인 가격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회사 21닷컴가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정부는 최근 세 차례의 압수로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정부 금고로 가져왔다. 이미 약 2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각했지만, 아직 남은 비트코인 가격은 50억 달러를 넘는다. 불법 비트코인의 압수에서 현금 청산 명령을 받기까지의 법적 절차는 수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이득을 보기도 한다.

올해 미국 파산 증가세... “원인은 연준”

올해 들어 미국 기업들의 파산이 증가세를 보이며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파산의 원인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리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9월 기업 파산 수치가 공개됐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대형 약국체인 라이트에이드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 일환으로 결국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지난달 파산 신청한 기업은 62개로, 연초 이후 총 516곳으로 증가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1년간의 수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팬데믹이 발생했던 2020년의 1~3분기 파산 기업 수인 518개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대로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파산하는 기업 수가 2010년 이후 가장



지난 15일 결국 파산 신청을 한 대형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 [로이테]

높은 수치였던 2020년을 웃돌 수 있는 셈이다. 2020년에는 총 639개의 기업이 파산했다.

슬리크 이코노미스트는 “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들은 높은 부채비율과 실적이 낮은 임의 소비재와 헬스케어, 산업 부문 기업들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3분기 파산한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스마일디렉트클럽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연준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3월 이후 금리를 11차례 인상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은 커졌다.

미국 9월 소매판매 0.7% ‘깜짝’ 증가

소비둔화 우려 불식

미국에서 전문가들의 둔화 우려와 달리 지난달에도 소비가 탄탄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17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7천49억달러로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2%)를 크게 웃돈 수치다. 지난 8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0.6%에서 0.8%로 상향 조정됐는데도 9월 소비가 전문가 예상치를 훨씬 웃돈 것이다.

소매 판매는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

하는 평가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은 연체율 증가와 저축 하락,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등을 이유로 미국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도 103으로 전월(108.7) 대비 하락하며 소비 심리 둔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소매 판매 지표는 이런 우려를 불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소비가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시장 안팎에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정책을 더 강하고 오래 펼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페어팩스의 한 월마트 매장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바이든, '이·팔 전쟁' 와중 이스라엘 방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중대 기로에서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18일 당사국인 이스라엘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올해 2월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오후(미 동부 시간) 전용기편으로 미국을 떠나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한 뒤 하마스 대응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회담한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 여부, 대표적 반(反)이스라엘 국가인 이란의 개입에 따른 확전 여부 등의 갈림길에서 이뤄지는 세계 최강대국 지도자의 이스라엘 방문은 사태의 향후 전개 방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과 국방부 발표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민간인 1천200명 이상을 살해한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맞서 반격을 진행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이번 전쟁과 관련한 전략과 구상을 청취하고 군사적 지원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그와 더불어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봉쇄가 길어지면서 현지 주민의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민 대피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또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다수 민간인의 희생을 초래하는 '과도한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할 것

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 암만을 방문해 아랍 지도자들과 만나 하마스를 고립시키고,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한 명분을 설파하는 '대리 외교전'을 펼 예정이나 상황은 여의찮아 보인다.

당장 이스라엘군이 17일 오후 가자지구의 한 병원을 공습해 최소 500명이 숨졌다는 BBC와 알자지라 방송 등의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습을 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동정론과 중동의 반이스라엘 여론 사이의 균형을 깰 수 있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원 행보와 타 아랍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은 난관에 봉착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과 암만에서 만날 예정이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마무드 아바스 수반은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을 "병원 대학살"로 규정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민자 사상 검증...무슬림 입국 금지”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과 연계한 헤즈볼라를 칭찬해 반발을 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한 '사상 검증'을 주장하고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판하며 헤즈볼라를 향해 “매우 똑똑하다”고 언급.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경선 주자들로부터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7일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공화당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 유세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모든 이민자에 대해 강력한 사상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자,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또는 어디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에서 오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다시 당선된다면 “이슬람 극단주의나 테러주의에 공감하는 사람을 비롯해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이라고도 단언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에게 공감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적극적으로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 검증을 실시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도 쫓아내야 한다면서 “이들도 몰아낼 것”이라고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난했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헤즈볼라는 똑똑한 게 아니라 사악하다”고 가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말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미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 주자들 내에서는 가자 지구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무슬림을 겨냥해 비슷한 이민 통제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다만 취임 후에는 10여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으로 이를 대체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해당 조치는 취소됐다.

“에이태컴스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공급...러 상대 사용중”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오랜기간 절실히 요구해온 에이태컴스(ATACMS·사진)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리의 미국이 ‘조용하게’ 우크라이나에 전달한 에이태컴스 미사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워싱턴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지 약 1개월만에 에이태컴스가 실전에서 사

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에이태컴스를 확보함으로써 대러 반격 과정에서 러시아 지휘소와 탄약고, 보급로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작년부터 에이태컴스 수백기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사태를 악화할 수 있다며 한동안 지원에 난색을 표했었다.



미국이 에이태컴스 지원을 결정한 것은 러시아가 지난달 북러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으로부터 컨테이너 1천개 분량의 탄약 등 무기를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전황의 균형을 깰 가능성이 생긴 것이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에이태컴스 지원을 촉진시켰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민자 쓰나미” 에 두손 든 매사추세츠

미국에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것으로 분류되는 매사추세츠주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 앞에서 두 손을 들었다.



요를 맞춰나가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마우라 힐리(사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다음 달부터 난민 보호법 시행을 일부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주는 기존에 제공된 보호 시설은 계속 운영하되, 추가로 망명 신청자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난민 가족의 수를 제한하는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난민 보호법은 ‘임신부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요청할 경우 주정부는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이나 재해로 거주지를 잃은 가정에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40년 전 제정됐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밀려오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지원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의 능력으로선 더 이상 이 법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매사추세츠는 7천 가구에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불어난 수치다.

힐리 주지사는 “보호시설에 대한 수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1988년 이후 9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물표를 준 지역이다. 현재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이다.

공화당에 비해 비교적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내세우는 민주당 주정부가 현행법 시행도 포기할 만큼 이민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역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난민 보호법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최근 법원에 망명 신청자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난민 보호법 적용을 중단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앨 고어 “현실된 기후위기, 기회 길어야 5년 남야”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생소하던 시절부터 기후 위기를 경고해온 앨 고어(사진) 전 부통령. 2000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로 패한 그는 환경 운동가로 변신했다. 지난주 발간된 주간지 뉴요커 최신호에 따르면, 변신의 단초는 그가 미 상원의원이던 1992년 출간한 소책자 『균형 있는 지구』에 있다. 환경 문

상을 공동 수상했다. 근래 들어 폭염과 폭우·폭설 및 대형 산불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으면서 그의 통찰이 새삼 주목받는다.

뉴요커는 최신호에 실은 고어 특별대담에서 “그가 경고했던 일들이 현실로 닥쳤다”며 “그럼에도 그는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뉴요커가 붙인 기사 제목은 ‘앨 고어는 ‘내가 이럴 거라고 말했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10년 전 인터뷰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젠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미래가 아닌 당

면한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과”라며 “결국 사람 때문이고, 사람이 바뀌어야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성과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분야를 꼽았다.

그는 “정치인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증세하자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내리는 정치적 사망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75세인 그는 “인류에게 주어진 건 길어봤자 5년, 짧으면 3년이다. 싸우거나 논쟁할 시간도, 절망할 여유도 없다”는 요지의 말을 되풀이하며 “요즘 더 조바심이 난다”고 했다.

전수진 기자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FDIC EQUAL HOUSING LENDER NMLS #794513 www.bankofhope.com/mortgage

홈 모기지도, 채용자도, 빠르면 30일 안에 끝!
홈 모기지 전문가
Bank of Hope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홈 모기지 신청
aplynnow.bankofhope.com 를 방문하세요.

Tiffany Lim
703-678-8882
MLO, NMLS# 830856 | tiffany.lim@bankofhope.com

애난데일 지점: 7410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13890 Braddock Rd #102, Centreville, VA 20121

Bank of Hope
Home Mortgage

*30일 마감 기간은 초기의 모든 고지내용과 함께 서명된 대출 신청서를 수령하는 즉시 시작되고, 대출 종료시 종료됩니다. 소비자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요구된 시간 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심사 또는 대출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대출을 마감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면제에 대해 DU 승인을 받은 에이전시 론(Agency loans), 최대 2명의 대출 신청자, 각 신청자의 W2 임금 소득, 단독주택(SFR) 또는 PUD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55-448-8989로 문의하십시오.

미, 이스라엘에 세번째 항모 파견 ... 해군 4000명 합류예정

중동 확산 불씨, 진화나선 미국
이스라엘 인근에 전략자산 전개
이집트·요르단 등 설득 나설듯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38만 명에 달하는 지상군을 투입해 하마스 섬멸작전을 예고한 가운데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대응을 천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는 17일 이스라엘을 향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겨냥한 범죄와 관련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



해 보도했다. 하메네이는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된다면 누구도 이슬람교도와 저항 세력에 맞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이란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사태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며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저항 전선에 의해 선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 통치자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으며, 가자지구를 장악한 하마스에 대한 자금 및 무장 지원 사실을 숨기지 않아 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란이 이번 사태에 공식 개입할 경우 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 지난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친이란 무장 단체 헤즈볼라가 자리 잡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 레바논에서 이미 충돌이 빈발해지고 있다. 하마스와의 연대하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한 미사일과 로켓포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이스라엘에 급파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게 한 뒤 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와의 견을 조율했다. 의견을 취합한 블링컨 장관은 나흘 만에 네타냐후 총리와 재차 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공식화했다.

이 과정에서 하마스 섬멸 지상전을 고수하는 이스라엘과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전선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이 의견을 조율했는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대해 "이스라엘에 대한 강

력한 미국의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미국을 200만 명이 감히 있는 가자지구의 유혈 사태와 묶어둘 것"이라며 "정치·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경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외교 성과가 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정치 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이스라엘에 이어 요르단 암만을 방문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압넬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비롯해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과도 만날 예정이다.

미국은 전선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스라엘 인근에 전략자산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군 당국자를 인용해 "현재 4000명 이상의 미 해군이 이스라엘 연안 미군 함대에 합류할 예정이며, 세 번째 항공모함 전단도 이스라엘로 이동하기 위해 지중해에 있다"고 보도했다.

NBC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병력 2000명을 중동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며 "배치 병력은 군수·의료 지원과 폭발물 처리 등의 임무를 맡을 예정으로 24시간 이내에 배치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전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대변인 아부 오바이다스는 16일 성명에서 "지상 공격을 감행한다는 점령자(이스라엘)의 위협은 두렵지 않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며 "가자지구에는 200~250명의 인질이 있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질 22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압둘라 요르단 국왕은 17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와 의정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요르단과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와 요르단간 서안에서 인도적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박형수·강태화 기자

“하마스 최고지휘관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휘관 중 하나인 아이만 노팔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AP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에서 "아부 아흐메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노팔이 오늘 가자지구 중심부의 알부레이지 캠프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노팔은 알카삼 여단의 중부 사령관이자 하마스 군사위원회 직원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매체는 다만 이스라엘군이 노팔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현지 일간 하레츠는 이날 이스라엘군(IDF)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가족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레바논 남부 알마 알샤브 마을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

았다. 레바논 남부의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7일 전쟁 발발 이후 하마스와의 연대하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의 산발적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전차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침투를 시도하던 무장대원 4명을 사살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에는 알마 알샤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공습을 감행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취재하던 기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로이터 통신 기자 1명이 숨지

고 6명이 다쳤다고 방송은 알렸다. 정사내 기자



하마스의 무기 ... 480km 망글 '가자 지하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 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후방으로 잠입해 공격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망글(터널). CNN에 따르면 하마스의 망글은 길이 30m, 총 연장 길이는 483km로 추정되며, 가자지구 곳곳의 집과 건물 지하를 거미줄처럼 이어 만들어 '가자 지하철(Gaza Metro)'로 불린다. [AP=연합뉴스]

브뤼셀 총격테러 2명 사망... 용의자 "신은 위대하다"

"IS서 온 전사" 주장... 도주중 사살
유로축구 스웨덴벨기에전도 중단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자국 대표팀을 원정 응원 중이던 스웨덴 축구 팬들이 테러범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벨기에와 스웨덴의 2024 유럽축구연맹(UEFA) 선수권대회(이하 유로2024) 예선 도중 브뤼셀 시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스웨덴 원정 팬 2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

벨기에 경찰은 '45세 튀니지인 극단주의자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용의자는 브뤼셀의 한 카페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했다. 용의자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나는 이슬람국가(IS) 출신이자 알라신을 위한 전사"라고 주장했다.

벨기에 언론에 따르면 브뤼셀 도심 생크레테트 광장 부근에서 한 남성이 스쿠터를 타고 나타나 총을 쏘았다. 이어 인근 건물로 들어가 거듭 총격을 가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는 총격을 가하기 전에 아랍어로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가장 위대하다)라고 외쳤다고 한 목격자는 전했다. 사건 발생 직후 벨기에 경찰은 테러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테러 여파로 벨기에와 스웨덴의 유로2024 예선 경기도 중단됐다. 1-1로 전반을 마친 직후 하프타임에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스웨덴 선수들이 경기 중단을 요구했고, 벨기에 선수들도 동의하면서 후반전은 열리지 않았다. 송지훈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이현영

703-259-5617, 410-241-2520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Woo's Auto Repair Service

엘리컷 BP개스 자동차 정비

신용과 친절로 최선을 다하는 엘리컷 전문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서비스

- 스모그 체크
- 엔진 Diagnostics / 엔진튜닝
- ABS & Break 서비스
- A/C 서비스
- 컴퓨터 진단
- 머플러 / 타이어 및 휠 어라이먼트
- 타이밍 벨트 / Water Pump
- 익스프레스 오일체인지
- 트랜스미션 / 엑셀샤프트
- 자동차 바디 및 글래스
- 라지에이터

T. 410-313-8039 c. 443-831-6530

8720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www.woosauto.com | yeonsikwoo@gmail.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현재 29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이게 KF-21, M-SAM, 천무...” 윤 대통령, K방산 세일즈

〈초음속 전투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다연장로켓〉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 2023’ 개막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방공체계 M-SAM(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정속급 전차인 K2 흑표, 천무 다연장로켓 등 10종을 일일이 열거하며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격년제로 열리는 서울 ADEX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 2023’ 개막식에서 KF-21 전투기를 소개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함께 소개된 K-239 천무 다연장로켓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왼쪽), 오른쪽 사진은 청주공항에 착륙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B-52. [뉴시스·뉴스1]

올해가 14회째다. 참가 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사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사로 늘었다. 말레이시아·호주·이라크 등 9개국 국방부 장관과 14개국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하는 등 외국 대표단도 55개국, 114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윤 대통령은 그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 목표를 제시하고 “대통령부터

1호 영업사원이 돼 방산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 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



끌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수주액 기준)은 2020년까지 오랫동안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70억 달러대로 올라섰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173억 달러로 급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 목표로 사상 최대 규모인 200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번 ADEX에는 스텔스 전략폭격기 B-1B 랜서,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 첨단 전자전기 EA-18G ‘그라운드 워리어’ 등 미국 전략무기도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저녁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민간·정부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명과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라며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현일훈 기자**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이 대거 복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가 ‘뜨거운 감자’인 중국의 탈북민 강제 복송 이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외통위의 주중국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재호 대사는 “지난 9월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탈북민 강제 복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중국은 결과적으로 한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탈북민 대거 복송’ 손 못 쓴 외교부, 전담팀 확대 검토

않았다. 2000년대부터 탈북민 이슈가 불거진 이후 중국의 입장은 동일했다. 탈북민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에 대해선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 원칙 중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근거

로 본인의 희망에 따른 출국을 요구했고, 중국은 당시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관행도 2010년대 들어 점점 퇴색했고, 탈북민 이슈는 정부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안타깝지만 중국 입장에서 한 총리의 이번 요청을

오랜만에 들어본 것일 테고, 외교부 홈페이지 영문 조직도에 탈북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빠져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부는 교육지책으로 ‘민족공동

체해외협력팀’ 확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3년 단위로 연장되는 임시 조직인 이 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복송된 후 만들어졌다. 한 전직 외교 당국자는 17일 “정부에 상관 없이 탈북민 이슈에 대한 원칙을 일관 없이 유지하지 않는 한, 조직 확대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차세현 국제외교안보에디터·박현주 기자**

“수송기 눈앞서 아이언돔 요격 목적 로켓 사정거리 벗어나서야 안도”

“우리를 보며 ‘한국이 부럽다, 멋지다’고 하더군요.” 전쟁에 돌입한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국민 수송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4일 귀국한 안호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대령)은 임무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 외국인 얘기를 꼽았다. 텔아비브 근교 벤구리온 공항에 동양인 군 조종사가 등장하자 신기해하며 말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안 대령은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뿌듯했던 순간”이라고 돌아섰다.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난 13일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KC-330 조종사 박종현 소령이 탑승을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해공항 출발 전 대원들에게 당부 사항을 전하는 안호삼 대령. [뉴시스, 사진 국방부]



이소라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난 13일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KC-330 조종사 박종현 소령이 탑승을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해공항 출발 전 대원들에게 당부 사항을 전하는 안호삼 대령. [뉴시스, 사진 국방부]

오좁 김해공항을 떠나 14일 오후 10시 45분쯤 한국인 163명,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220명을 태우고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 선임 조종사 안병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비행대장(소령)은 “탑승하는

분들의 벽찬 표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어린이는 태극기 그림 선물을 고마움을 표시했다. 장병들은 일본과 싱가포르 측에 먼저 도움을 손길을 내민 데서 대한민국

의 위상을 실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가용좌석 230여석 중 탑승 희망 한국인을 배정하고도 좌석이 남아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 등에 탑승을 제안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미즈시마 고이치 주이스라엘 일본 대사는 한국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 대령은 “일본 탑승객 중 산모가 있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며 “휠체어로 가장 먼저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했더니 남편이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공군 공정통제사(CCT) 박모 준위는 “일본 여학생이 서울공항에서 내릴 때 유창한 한국말로 ‘외국인인 저희를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더욱 뿌듯했다”고 말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다. 폭발음이 들리는 현지 상황

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었다. 조종석에선 착륙 5분 전 착륙 방향으로 날아오는 로켓포를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모습도 보였다. 활주로에 내려 안도하던 순간 다시 폭발음이 시작됐다. 지난 4월 수단 교민 탈출작전(프라미스 작전)에도 참여한 안 대령은 “로켓포가 주변에 떨어졌을 때를 가정하고 어떻게 작전을 펼쳐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임용순 제5공중기동비행단 정비반장(준위)은 “화물을 포장하던 중 폭발음에 정신을 가다듬었다”고 말했다. 장병들은 KC-330이 로켓포의 사정거리 이상 고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안 대령은 “요원들이 한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며 임무를 수행한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근평 기자**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비 이민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Eng/Kor) **703-246-9100** | (한국어 상담)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기

10월 HOT 리스팅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기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p>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크 부근 새 타운홈 \$890,000</p>	 <p>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p>	 <p>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된 집 \$675,000</p>	 <p>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p>
 <p>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p>	 <p>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p>	<p>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p> <p>버지니아 / 703-883-0321 매릴랜드 / 301-399-0140 D.C. / 301-399-0140</p> <p>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p>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현역 급감→군부대 해체, 불야성 화천 '사스베이거스' 몰락

(이기자 부대)

(사창리+라스베이거스)

이젠 슈링크노믹스 시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밤 강원도 화천군 사창리의 한 모텔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14년째 모텔을 운영한 윤기주(71)씨는 “면회·휴가 때문에 빈방을 찾지 어렵던 풍경은 옛말”이라며 “지난해 11월 인근에 있던 이기자 부대가 해체된 뒤 오늘처럼 객실 한 개도 받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털어놨다. 이기자 부대가 떠나기 전까지 9곳이던 사창리 PC방은 현재 3곳만 남았고, 식당·상점도 줄줄이 문을 닫았다. 한때 ‘사스베이거스’(사창리+라스베이거스)로 불릴 정도로 근방에서 가장 변화했던 곳이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군부대의 소멸은 지역 경제의 몰락을 불러왔다.

출생이 수 감소가 가파른 대한민국 전반에서 인구 감소→지역 경제 붕괴→거주인 이탈→또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일명 ‘슈링크노믹스’(축소경제)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강원 연구원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철원에서 6사단이 계획대로 빠져나갈 경우 연 소비지출이 916억원(지역 내 총생산의 6.5%) 줄고, 생산·소득에서 각각 1662억원과 1287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는 이미 시작



부대 상권 붕괴, 어린이집 폐원. 식당 등으로 불야성을 이뤘던 '사스베이거스' (강원 화천군 사창리 일대+라스베이거스)라고 불렸던 사창거리. 대목인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상가엔 불이 꺼졌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폐업 결정하고 정리 중인 경기도 성남의 어린이집. 화천=정진호 기자, [연합뉴스]



됐다. 분유회사는 적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구점은 2012년 1만 4731개에서 지난해 말 8000여 개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분유업체가 건강 식품 사업, 사교육 업계가 평생 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살길을 찾으려는 지각변동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재정 부담이 불어나고, 미래 투자가 감소하는 등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렵고 고된 일터는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식당에선 외국인 노동자 20여 명이 식사하고 있었다. 식당 메뉴판엔 중국어·베트남어로 ‘드



슈링크노믹스(Shrink+ Economics·축소경제) =인구 감소로 소비·생산·투자·고용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사용했다.

실 만큼만 가져가세요’라고 표기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건설 현장 근로자의 14.1%가 외국인이다. 한 건설업체 현장

소장은 “최근엔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가 고령화한 데다 젊은층이 현장 일을 기피하면서 고숙련 노동도 외국인으로 채우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선·해운·농축산·수산·외식업 등도 공통적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대전시 서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한 모(53)씨는 “5년 전부터 손님을 직접 맞이하지 않는 주방에선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를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수록 저숙련 일자리의 급여와 처우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곳곳에선 슈링크노믹스가 ‘현재진행형’이다. 전남 영암의 한 어린이집은 올해 4월 폐원하고 요양원으로 변신했다. 한때 어린이 120명으로 가득

찼던 어린이집을 80~90대 노인 8명이 채웠다. 요양원장 서모씨는 “어르신 돌보는 일이 어린이 돌보는 것과 비슷해 ‘노(老)치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3만923곳으로 2017년 이후 약 1만 개가 사라졌다. 읍·면·동 단위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같은 기간 466곳에서 560곳으로 늘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 대학가를 덮친 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펴낸 ‘지역 대학의 위기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강원도 강릉 지역 대학생 3600여 명이 줄면서 지역 소비지출이 278억원 감소했다. 이에 주요 대학은 외국 학생을 유치하는 식으로 살길을 찾고 있다. 강원도 고성의 경동대 ‘글로벌 캠퍼스’엔 한국 학생이 거의 없다. 대신 네팔·방글라데시·베트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유학생 950여 명이 주력이다. 학교 정문 앞엔 외국인 전용 마트와 식당이 여럿이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늦어도 10년 내 슈링크노믹스 문제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서 “기업이 육아휴직 같은 사내 문화 개선을 ‘보여주기식’으로만 활용할 아니라 장기적인 인적 투자로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기환·정준훈·정진호 기자

출산율 1위 해남 10년 뒤 반토막

(2.47명→1.04명)

문지마 ‘현금 장려금’ 의 역설

“현금을 더 주어진다고 갑자기 결혼해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전남 해남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문정훈(31)씨는 해남을 유명하게 만든 ‘출산장려금’에 대해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병원·학교가 부족해 결국 지원금만 받고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쓴소리를 했다.

해남은 2012년 국내 합계출산율 1위(2.47)였다.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과격적 정책의 효과였다. 하지만 출산율은 지난해 1.04명까지 떨어졌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해남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아이의 엄마 중 28.3%는 출산 직전(6개월 내)에 해남에 전입했다. 이후 3년간 장려금을 받은 아이 중 26%, 엄마 중 22%가 해남을 떠났다.

이는 저출산에 허덕이는 지자체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모두 출산장려금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평균 출산장려금은 첫째 기준 615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

암·진안·함평 등 2012년 출산율이 2명을 넘던 지역 대부분이 10년 새 출산율이 반토막났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차원의 출산장려금은 이웃 지역끼리 인구를 빼앗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가난하고 급한 지자체일수록 인프라에 대한 투자 대신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출산장려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출산율 증가 효과는 0.03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동 1명당 인프라 개선 예산으로 100만원을 썼을 때는 3배 이상인 0.098명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출산 지원사업 예산(1조 809억원) 가운데 인프라 사업 비중은 6.6%에 불과했다. 현금성·바우처 지원이 78%다.

나상현·서지원·이우림 기자

20대 초반엔 알바·경험쌓기, 후반 돼야 취업... “2000년대생은 늦게 온다”

#올해 초 대기업 제조업체에 취업한 박모(26)씨는 휴학 기간까지 합쳐 7년간 대학을 다녔다. 인턴 경험을 쌓기 위해 1년, 군 입대로 1년6개월 휴학했다. 졸업을 미루고 1학기를 더 다녔다. 그는 “지난 8월 신입사원 연수를 다녀왔는데 100여 명 동기 중 남자로는 어린 편이었다. 여자도 비슷한 나인데 대부분이고 어린 동기가 1999년생”이라며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199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다. 이젠 200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취업에 나설 때가 됐지만,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늦게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61.1%로, 지난해 같은 달(60.6%)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20대 내에서도 초반(20~24세)과 후반(25~29세)의 고용률이 갈렸다. 20대 초반 고용률은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전년 대비 하락세



16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취업정보박람회 에서 구직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 반면 20대 후반은 72.5%를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았다.

청년 고용률 증가세가 20대 후반에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20대 초반 취업자 중에선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 비중이 늘었다. 본격적인 사회 진출 초반엔 경험 쌓기, 용돈 벌이에 집중했다는 의미다.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달 20대 초반 남성 취업자는 49만400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같은 달(49만5000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질적인 정규직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라면 비교

하면 이 기간 35만 명에서 28만7000명으로 6만3000명(18%) 감소한다. 이 기간 주 36시간 이상 여성 취업자는 52만 8000명에서 39만2000명으로 13만6000명(25.8%) 줄었다. 남성의 경우 이 기간 군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줄고, 여성은 입대로 인한 휴학 기간이 없음에도 20대 초반 취업은 줄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빠르게 졸업하고 취업하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변화한 인구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0년 32.1세였던 중위연령(국내 인구를 출생연도별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할 나이는 올해 45.6세까지 높아졌다. 빠르게 사회에 진출해 자리 잡고 30대면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줄었다.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을 오랜 기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은퇴연령이 늦어진 만큼 부모의 자녀 부양 여력이 생겼다.

세종=정진호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저서교정 운동 (축만중, 후만중)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중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김동연 경기지사 “김혜경 법카 100건 사적사용 의심”

(이재명 대표 부인)

행안위 국감 출석, 여당 질문에 답변
이재명 재판 8시간, 대장동 등 반박

“저 숲이 잡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 는 딱 보면 아는 건데 검찰이 DNA 분석기를 들고 숲속의 땅을 파내 소나무 DNA가 발견됐다고 외치는 느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된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32분간 해명을 쏟아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공소사실 요지를 3시간10분에 걸쳐 조목조목 짚은 뒤 발언권이 넘어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검경제범죄자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 등에 대한 사실상 첫 재판이다. 지난 6일 열

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문제로 80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갖은 비유를 들어 재판부에 결백을 호소했다. “모든 개발이익을 다 회수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제가 공산당이 아니지 않나” “제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부터 거의 매일 수사·감사를 받아서 그때부터 저는 ‘어항 속에 든 금붕어’라 생각했다” 등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내용대로라면 제가 징역 50년 감”이라고도 항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일련의 검찰 행태는 현 정권과 하나가 돼 원내 제1야당 대표를 무력화하려는 차원에서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에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성남시장 치적용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조선 때부터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구에게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성남시에 자금이 없고,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가 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주지 않자 결국 민간업자들과 손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재판은 이 대표의 지각으로 10여분 늦게 시작돼 오후 8시38분쯤이 돼서야 끝났다. 재판시간만 8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자신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되돌려 보내 보강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대급 썸수다. (검찰이) 자신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 듯하게 포장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많은 검사가 투입됐는데 빈털터리 수사 결과”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날 행안위 경기도청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윤지원·이병준·김철웅·최모란 기자

의대 증원 앞두고... 의협 “협의없이 강행 땀 강령 투쟁”

긴급 대표자회의... 총파업 등 경고
지자체는 “지역의대 신설” 목소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총파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7일 “정부가 의대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의사 14만 명과 의대생 2만 명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 회장은 “의료계도 의사 인력이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강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이광래 전국 시도 의사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행한다면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는 전적으로 의·정 간 신뢰를 갠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

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대한사회의학·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고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의료계의 반발과 상관없이,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서로 확보하려는 힘겨루기도 시작했다. 전남도의회는 18일 국회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의과대 유치를 위한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으며,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할 방침이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 확대는)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에선 창원시가 의대 신설 유치 전에 뛰어 들었다. 창원은 인구 100만 명

이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곳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경북 안동에서 의사 부족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심해지고 있다며 지난달 9일과 이달 4일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범시민 켈기대회가 열렸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부정적이다. 김미란(아주대 의대 산부인과) 한국의학교육학회 교육이사는 “의대를 새로 세우려면 기초·임상 의학 교수진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초 의학 교원이 최근 많이 줄고 있다.

병원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수요를 채우기 마땅치 않아 의학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석진 인제대 의대 학장은 “서남대 의대는 교육 병원 등 시설과 교수진이 뒷받침되지 않아 결국 폐교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강윤식 경상대 의대 학장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이 인원이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 수련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혜영 충북대 의대 학장은 “작은 규모의 대학이라도 교수 등 인력과 공간 자원이 갖춰져 의학 교육의 질이 우수한 대학들이 있다”며 “여기서 사람 수를 조금 추가한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 소규모 대학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19일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 발표하려 했지만 이날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폭넓게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원을 과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채혜선 기자

‘여권 텃밭’ 부산 노리는 민주당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PK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0.3%, 더불어민주당 46.3%로 나타났다.

보궐선거 전에 진행된 같은 조사(4~6일)에선 PK 지지율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8.9%로 미세하나마 여당 우위였는데, 보궐선거를 거치며 뒤집힌 셈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미묘하게 달라진 기류에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던 부산에서도 “내년에 해볼 만하다”는 민주당의 기대감이 커

지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17일 통화에서 “과거 민주당 지지를 표현하지 않던 분들도 ‘내년엔 꼭 강서처럼 이겨야 한다’고 커밍아웃을 한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중랑감 있는 인사의 차출·영입설도 나오고 있다. 부산 데레사여고를 나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꾸준히 부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전 전 위

원장은 지난 8, 9월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부산시당 초청으로 부산에서 특강을 했다. 외부 인사로는 류삼영 전 총경이 영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부산에서 경찰학 이력을 쌓아온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직위 해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 항명의 중심에 섰던 분이기에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그래도 부산은 혐지”라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부산 지역을 꼭 집어 ‘새로운 피수혈’을 거론하는 점이 부담이다. 부산의 한 민주당 의원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진 건 맞지만, (부산 시민이) 우리 당 목을 지금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 비용이 입금)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김기현 “김행 사퇴, 용산에 할말 했다” ... 시큰둥한 의원들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 대표, 보선 패배 후 의총 발언 당내 “그게 무슨 대단한 반대냐”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후 김기현 대표의 재선임 여부를 묻기 위해 일요일인 지난 15일 오후 긴급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김 대표 체제 유지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같이 한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할 소리를 하라”는 주문이었다.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모두 들은 김 대표는 회의가 끝날 무렵 마이크를 잡았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김 대표가 새로운 각오 정도를 말하고 발언을 끝낼 줄 알았지만 김 대표는 “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 했다면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실을 비판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물밑에서 대통령실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사례를 열거했다.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바꾸는 개각 필요성과 김

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선 당의 의견을 용산에 전달했다”는 식이었다.

김 대표는 평소 주변에 3·8 전당대회 직후 당직 인선을 하면서 “대통령실 내 정자”라는 소문이 돌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당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하지 않은 걸 자신이 용산의 뜻을 꺾은 것이라 취지로 얘기하곤 했는데, 의원들에게도 이런 사례를 알렸다. 김 대표는 30여 분간의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이 대통령실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이 적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 반응은 썩 좋지 않았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17일 “김 대표 말을 듣고 ‘야, 그랬구나’ 이해가 된 게 아니라 ‘왜 이제 와서 저런 소리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반대였나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말한 사례를 두고 “그걸 목소리낸 거라고 할 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왼쪽)과 이만희 신임 사무총장. 김성룡 기자

있냐”고 비판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애초 친윤계가 김 대표를 재선임하려고 짜고치는 고스톱 느낌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퇴라고 말해봐야 소용 없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반응이 이런 건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수평적 당

정 관계’로 실제로 변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준석 사태’를 겪은 뒤 치러진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는 “당정을 분리할 거면 여당을 왜 하느냐”라는 식으로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의총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여당 인사들이) 공

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해서 결국 보수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느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비윤계 의원은 “의총 때 당정 관계를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내놓고 내놓은 당직 인사가 결국 친윤 일색 아니었나”며 “김 대표가 대통령실과 엮박자가 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윤 대통령의 이미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강점은 추진력과 강단인데,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거리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다. 안쓰러워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이미지로 인식돼야 선거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강성’ 이미지가 자칫 내년 4·10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을 모으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친윤계 의원들도 대통령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미지 변화를 조언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김대영 기자

류호정 “이정미 지도부, 국민의힘보다 더 무책임”

(정의당 의원)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류호정(비례·사진) 의원이 17일 “현 지도부의 자강론(自強論)은 실패했다”며 이정미 대표의 즉각 사퇴와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궐선거 패배로 이대론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지도부가 사퇴하지 않는 경우 당내 ‘대안신당 당원 모임’(대안신당 모임)과 공동 행동에 나서는 걸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모임은 김종대·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 주도하고 있다. 류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날 당직 쇄신과 비교하며 “저쪽은 임명직 당직자 사퇴 등 ‘착’이라도 하는데 정의당은 (당 청년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 1명이 사퇴한 게 전부”라며 “국민의힘보다 더 무책임하다”고 지도부를 성토했다. 정의당의 득표율은 1.83%로 진보당(1.38%)과 엇비슷했다.

그는 정의당이 존재감을 상실한 현 상황을 “심상정 의원과 인천연합(이정미 대표가 속한 당내 최대 계파)이 번갈아가며 운영한 정의당이 서서히 몰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 해법으로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았던 제3지대 신당 창당으로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당 출신 대안신당 모임뿐 아니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새로운 선택’,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 제3지대 신당 추진 세력이 모두 모여

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양당제를 부수고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룹들을 다 만나자는 얘기”라며 “서로를 악마화하는 양극단 진영 정치에 지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구도를 깨야 한다”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땀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만든 적이 있다.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위문희 기자

에너지 공기업, 해외 신재생 투자 절반이 적자

(22건 중 11건)

22건 중 15건은 문 정부 때 투자 기후 등 리스크 제대로 고려 안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실패’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개사(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투자한 해외 신재생 사업은 누적 22건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1건의 최근 사업 순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수원 스페인 태양광, 동서발전 칠레 태양광 등 3건의 사업은 수익성 저조로 매각·청산을 추진 중이거나 조기 종료됐다. 일부는 손을 터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한전의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은 인수 5년 만인 지난해 종료됐다. 현재는 지주회사 청산을 진행 중인데, 자본금·지급보증액을 합친 매물 비용만 2600만 달러(약 35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보조금과 기후·송전 변수 등 사업 리스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투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밍구·라오닝성·간쑤성에 걸친 한전의 중국 풍력 사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보조금 액수가 1447억원

을 넘는다. 특히 간쑤성 사업은 주변 신규 풍력 발전소 증설에 따른 풍속 저하·송전 제약과 중국 측 재원 부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지연 등이 겹치면서 경영 악화를 불러왔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적자 규모만 122억 원이며, 지난 8월 기준 자본잠식률이 69%에 달한다.

서부발전이 참여한 호주 배너튼 태양광 사업은 일사량 감소·송전선로 제약 등으로 2020년 상업운전 개시 이후 연 수십억 원의 손실이 쌓이고 있다. 또한 남동발전의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은 정부 지원액 감소로 매출이 크게 줄면서 올 상반기 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중국 네이밍구에 건설한 풍력발전 단지. 라오닝성·간쑤성까지 걸친 풍력사업은 보조금이 14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한전]

그런 만큼 공기업들이 신재생 사업 유망성이나 정책 방향만 보고 뛰어드는 대신, 투자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업도 있지만, 전체 사업 22건 중 15건은 ‘신재생 드라

이브’를 걸던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투자다. 익명을 요청한 공기업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국내·외 가리지 않고 신재생 사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다 보니 공기업 투자도 확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으로 극심한 재무 부담을 떠안은 에너지 공기업에선 해외발(發) 손실이 더 뼈아플 수밖에 없다. 한전은 2021년 이후에만 47조원 넘는 영업손실이 쌓였다. 중부발전(199%), 한수원(165%), 서부발전(152%) 등도 지난해 기준 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겼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구조상 해외 신재생 사업을 마냥 벌여들 순 없다. 해외 사업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p>센터빌 싱글홈</p> <p>\$985,000</p> <p>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p>	<p>알렉산드리아 싱글홈</p> <p>\$680,000</p> <p>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 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p>	<p>클립턴 싱글홈</p> <p>\$1,350,000</p> <p>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드 많이함.</p>	<p>우드브릿지 타운홈</p> <p>\$400,000</p> <p>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p>
--	--	--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8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Tel: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HONEST GRILL

KOREAN BARBECUE GUIDE

"The 100 Very Best Restaurants in Washington"
by WASHINGTONIAN



Lunch Combo Special

Monday - Friday 11:30 AM - 3:30 PM

Choice of
Pork or Beef

+

Choice of
Buckwheat Noodle
(Spicy or Cold)

*Lunch only | Dine-in only | No take out |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 While supplies last

Monday Dinner

Dry Age Experience

Dry Aged Ribeye*

~~79.99~~ → 59.99

*Cannot be combined with other promotions/discounts
*Participants must purchase guide(s) and/or a-la-carte item(s) equivalent to their party size in order to be eligible.
*While supplies last
*Excluding holidays

Tuesday Dinner

Signature Experience

Signature Beef Guide*

~~89.99~~ → 69.99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Signature Experience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Beef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Wednesday Dinner

Pork Madness

Signature Pork Guide*

~~74.99~~ → 59.99

*Cannot be combined with any other promotion
*Pork Madness promotion is limited to only "Signature Pork Guide"
*Any substitution(s) in the guide will incur extra charge(s)
*Excluding holidays

14215 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honestgrillva.com
(703) 543-2320

RESERVE
YOUR
TABLE
NOW



우리말 바꾸기

햇사과, '해팔', '햅쌀'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햇사과·햇밤뿐 아니라 해팔·해콩 등 온갖 햇과일과 햅곡식이 쏟아져 나온다.

이처럼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햇'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팔'과 '해콩'에서와 같이 '햇'이 아니라 '해'가 쓰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ㄸ, ㅃ, ㅆ)나 거센소리(ㅈ, ㅋ, ㅌ, ㅍ)로 날 경우엔 '햇-'이 아닌 '해-'를 쓰도록 돼 있다. 따라서 '사과' '밤' '과일' '곡식'은 단어의 첫머리가 각각 'ㅅ' 'ㅂ' 'ㄱ' 등으로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햇사과' '햅밤' '햅과일' '햅곡식' 등과 같이 '햅-'으로 적는 것이다.

반면에 '팔'과 '콩'의 경우엔 단어의 첫머리가 'ㄹ'과 'ㅇ', 즉 거센소리로 시작하고 있으므로 '햇'이 아닌 '해'를 붙여 '해팔' '해콩'이라고 해야 한다.

그럼 그해에 새로 나온 쌀은 뭐라고 해야 할까? '해쌀'도, '햅쌀'도 모두 바른 표기가 아니다. 바른 표기는 '햅쌀'.

그 이유는 '쌀'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쌀'은 원래 중세 국어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ㅂ'이 있던 단어다. 이 'ㅂ'이 음가를 갖기 때문에 '해쌀'이나 '햅쌀'이 아닌 '햅쌀'로 표기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호랑이도 풀을 뜯는다



손국락
보잉사 시스템공학 박사
라빈대 겸임교수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호랑이가 웅맹하고 위엄이 있지만, 과시적이며 허세를 부리지 않기엔 아무리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고고함을 뜻하는 교훈이다. 그런데, 러시아 연해주에서 27년 동안 야생 시베리아호랑이를 관찰하고 연구한 박수용 자연 다큐멘터리스트가 쓴 '꼬리'를 읽고 호랑이도 풀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꼬리'를 읽은 후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호랑이가 동물을 잡아먹다 보면 동물의 털을 조금씩 삼키게 된다. 그 털은 대부분 배설되지만 일부는 체내의 위와 장에 쌓인다. 그래서 털이 많이 쌓이면 호랑이는 거북함을 느껴 장을 청소할 수 있는 길쭉한 풀을 먹는다. 그러면 풀과 함께 털들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호랑이는 이런 식으로 내장을 깨끗이 청소할 뿐 아니라 모자란 식물성 영양소도 보충할 수 있다. 호랑이가 풀을 뜯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한다. 우리도 가끔 호랑이처럼 풀을 뜯을 필요가 있다. 풀을 뜯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공통의 이해와 대립하는 이해가 있을 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호랑이처럼 풀을 뜯어야 한다. 상호 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교섭술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의미

다. 문제의 상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서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는 능력이야말로 교섭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좋은 예로, 이스라엘은 1967년에 있었던 6일 전쟁 이후, 이집트 영토였던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를 위한 교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주장은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집트 역시 시나이 반도 전역이 이집트에 반환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단 한 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표면에 나타난 주장에서 배후에 있는 이해관계로 눈을 돌렸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스라엘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의 안전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국경선 일대에 이집트 탱크 부대가 언제라도 진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집트의 최대 관심사는 시나이 반도의 주권에 있었다.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에 빼앗긴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긴 수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담한 결과는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의 주권 아래에 두는 대신에 그 지역을 비무장화하여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의 국기는 볼 수 없어도 이집트의 탱크 부대는 볼 수 없게 되었다.

호랑이의 위와 장에 쌓인 털이 이스라엘에는 시나이 반도 국경선 일대에 주둔한 이집트 탱크 부대였으며, 이집트에는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나이 반도의 주권이였다. 결국, 양국 정상들은 자신들의 위와 장에 쌓인 털을 청소하기 위해 호랑이처럼 풀을 뜯어 먹었다. 그러자 몸속에 쌓여있던 털이 몸 밖으로 배출되었다.

그렇다. 자기 입장만을 염두에 두게 되면 그 배후에 있는 당사자의 관심사는 소홀히 하게 되어 합의는 어렵게 된다. 그러나 대립해 있는 입장의 배후에 깔린 본래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입장의 배후에는 상충하는 이해보다 더 많은 공통적인 이해가 존재한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

이야침에

사막에서 만난 순백(純白)



송장길
인문인·수필가

대륙을 섭렵하는 모미의 으름은 대자연의 진수와 만나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맛보는 것이다. 드넓은 평야와 우람한 협곡, 그 안에서 나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온갖 사물들의 의미를 음미하고 일체감을 얻을 때의 깨달음과 기쁨은 가히 희열에 가깝다. 감정은 맑고 순수하며, 성찰의 계제에 세상의 어지러움과 사악함이 파고들 틈새는 없지 않다.

1980년대 미국에 온 이후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101번 고속도로를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없이 애용했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근래에는 5번 고속도로를 더 선호한다. 몇 시간씩 달려도 동쪽으로는 끝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서쪽에는 희끄무레한 화강암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줄곧 따라온다.

뜨거운 햇볕에 메말라 죽은 풀들, 생물들이 살 것 같지 않은 바닷, 구불구불 이어지는 구릉, 용암이 융기할 날카로운 바위산과 계곡은 원시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차를 세우고 들여다보면 뜨거운 돌과 건조 사이로 이름 모를 벌레들이 스멀거리고, 선인장이 앙증스러운 꽃잎으로 반기며, 스프링클러로 연명하는 과수원에는 다람쥐

가 주뻗거린다.

광대한 황야와 태산을 바라보고 있거나 죽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력을 만날 때면 그 장엄함과 신비함에 매료돼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새삼 반추해 보게 된다. 매료되는 순간에는 마음이 백지처럼 깨끗하다. 세상살이의 난삽함은 모두 지워지고, 앞에 펼쳐진 자연의 현실과 진실만이 눈부시게 다가온다.

존 스타인벡의 명작 '분노의 포도'의 마지막 무대인 베이커스필드 갈릴림에서 고속도로를 나와 자동차 연료를 채우고 나서 요기를 하러 바로 옆의 '인 앤 아웃(IN-N-OUT) 햄버거' 가게로 들어갔다. 점심때라 길게 늘어진 줄에서 서서 기다렸다. 언뜻 한 백인 부부가 음식을 들고 줄 너머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틈을 찾고 있는 모습이 눈

에 띄었다. 좁은 공간임에도 열린 뒷걸음질 쳐 간신히 길을 열어주었다.

"고맙습니다. 친절하시군요." "천만에요. 당연하지요." 정중한 감사 표시에 맞게 미소를 띠며 깎듯이 답례했다. 그들의 평소 삶의 자세가 매우 바르고 성실하겠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전해졌다. 흔한 인사지만 양측의 표정과 음성에도 진정성이 묻어 있었다. 차레가 되어 음식을 받아 아내가 잡아 놓고 있는 자리에 앉는데 아까 그 백인 부부의 옆자리였다. 그들이 파안대소하며 먼저 반겼다. 우리는 자연히 웃는 얼굴로 대화를 나눴다. 서로 여행에 관해 물었고, 여러 이야기 중에 자신들이 UC버세드 교수라는 소개가 나왔다. 낮 가리지 않고 소박한 열린 자세의 향기가 맑디 맑고 향긋하게 전해졌다. 아마도 캠퍼스와 자연에서 형성된 청아한 성격이리라.

우리는 미소가 가득한 환담을 하고 교차 포옹으로 작별했다. 떠나는 그 부부의 뒷모습이 긴 여운을 남겼다. 눈빛이 형형한 두 사람의 자태가 자연의 진수가 조각한 형상이라고 여겨졌다. 인상과 화가들이 사막과 산맥을 배경으로 그 형상을 그린다면 어떤 명화가 나올까?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이십 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원 재판관의 명의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십여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지몬드 페넌슐라 상담원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김우중의 몰락, 박정희식 성장 모델에 작별을 고했다”

(대우그룹 회장)

김대중
육성 회고록 (22)



‘제2의 6·25’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에 먹구름을 몰고 온 외환위기 얘기다.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에 당선된 나, 김대중(DJ)은 당선자로서 첫날부터 생존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에 매달렸다.

구제금융을 받고 경제 주권을 바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가 본격화한 시기였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했다.

당선 이틀째인 20일에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불렀다. 나라 곳간 상태가 궁금했다.

“현재 외환보유액이 30억7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당장 내년 1월 만기의 외채가 돌아오면 갚기 어렵습니다.”

곳간이 텅 비어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될 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이 파산의 벼랑으로 치닫고 있음을 절감했다.

외환위기는 성장지상주의에 매달려 온 ‘박정희식 발전 모델’에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라고 본다. 당시 기업들은 경쟁력과 수익성을 외면한 채 문어발식 외형적 성장에 빠져 있었다.

권력과 결탁해 금융기관의 특혜 대출을 받아 덩치만 키웠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배짱으로 배수진까지 쳤다.

방만한 경영 속에 위기가 닥치자 부실해진 기업과 금융기관은 충격을 견디지 못했다. 정부의 오판과 대응 실패로 국가 부도의 수렁으로 몰렸다. 이것이 외환위기 사태의 본질이다.

박정희 개발독재 vs 대중경제론

나는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에 대해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다. 안티테제(대항 논리)로 주장해 온 청사진이 나의 ‘대중경제론’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불어넣은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공업화,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소득을 분배하는 일에 무지했다.

박정희 정권은 소수에게 특혜와 특권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을 추진했다. “길거리 거지도 정부가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 수 있다” “잔이자로 은행 돈을 빌려 사채놀이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까지 시중에 나돌 정도였다.

이런 방식으로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 농



1998년 1월 2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1986년 출간된 『대중경제론』. 1998년 2월 25일 15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희호 여사와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중앙포토, 사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대통령기록관]



“나라 곳간 텅 비었다”... 외환위기 국가 경제 파산의 벼랑 치달아

‘박정희식 성장지상주의’ 종말 공정한 분배 ‘대중경제론’ 추진

김우중, 워크아웃 경고 경시해 대우 해체의 불행한 결말 초래

민과 노동자는 저곡가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왜곡된 경제 체제가 굳어졌다.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대중경제론은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중이 주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분배를 받음으로써 ‘중산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형 사회’를 추구하는 구상이다. 『대중경제론』은 71년 대선을 앞두고 펴낸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에서 출발해 86년 집대성했다.

산업사회 시대 사고에 매인 민주노총

IMF 요구에 따라 4대 부문(기업·금융·공공·노동) 개혁이 나왔다. 어려웠던 노동 부문에선 노사정위원회(초대 한광옥 위원장)를 출범시키는 성과를 냈다. 무한경쟁 시대에 노사가 과거와 같이 싸움만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노동자·기업가·정부가 공동의 이익과 손해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담하느냐가 관건이다. 노사정위는 3자의 지혜를 모을 협의의 공간으로서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

노사정위를 운영하면서 민주노총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민주노총은 거부하다, 참가하다, 나가버리는 일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마치 기업과 정부에 회유당한 것으로 이해했다. 과거 산업사회 시대의 사고방식에 얽매인 민주노총이 안타까웠다.

기업 개혁은 매우 험난했다. 박정희식 개발 모델과 작별할 때가 됐다. 재벌의 선단식 경영체제, 재벌 성장의 주요 수단이었던 관치금융·정경유착·족벌경영 등 폐해를 혁파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벌들은 구조조정에 소극적이었다. 대우그룹의 해체 과정을 얘기하겠다.

나는 98년 1월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했다. 나는 김 회장의 경영 능력과 품성을 높이 평가했다. 야당 시절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인연을 잊지 않고 있었다. (DJ) “새 정부는 정경유착이나 관치금융 등 과거의 관행을 완전히 배제할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정부의 도움을 청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신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김우중) “재계가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2월 중 획기적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해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술선수범을 보이려던 김 회장이 고마웠다. 그런데 며칠 뒤인 2월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김 회장은 뜻

밖의 발언을 했다. “대우의 구조조정은 옥포조선소 인수 이후 80년에 다 했다. 앞으로 발표할 경영 혁신에 특별한 구조조정은 없다.”

동행한 유종근 대통령 당선인 경제고문에게 “대기업만 잘못했다고 하면 어렵하느냐”며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설전까지 벌였다.

재계의 불만을 대변한 돌출 발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와 나는 대화와는 거리가 있는 말이어서 의아했다.

하노이까지 찾아온 김우중의 호소

같은 해 10월 일본 노무라증권은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린다(Alarm bells for Daewoo Group)’는 보고서를 냈다. ‘최악의 경우 대우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외국 은행은 물론 국내 은행들까지도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자금난에 빠졌다.

이즈음 김 회장이 김중권 비서실장을 통해 나를 급히 만나고 싶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독대한 김 회장은 박달(대기업 간 사업교환)을 꺼냈다.

“부실한 삼성자동차(현 르노코리아 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우전자(현 유니아전자)를 삼성그룹에 넘기는 박달에 나서겠습니다.”

나는 대기업 간 박달을 주문한 상태였다. 경쟁력도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벌인 중복 투자를 바로잡으려면 기업 간 박달은 환란 극복을 위해 절실했다. 재벌 간 첫 박달 시도이었기에 김 회장이 또 고마웠다.

그러나 대우의 구상은 시장의 신뢰

를 잃은 상황에서 너무 늦었다. “대우는 빛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경영이 방만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다급해진 김 회장은 나를 만나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열린 베트남 하노이로 날아왔다. 12월 15일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조찬을 함께했다.

(김우중) “획기적인 지원이 절박합니다.”

(DJ) “강봉균 경제수석에게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강 수석은 금융감독위와 검토해 봤으나 대우의 해외 사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대우전자-삼성차 박달도 무산됐다.

빛내서 몸집 불리는 시대 종언

나는 5대 재벌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99년 4월 재계·정부·금융기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언했다.

“대기업의 개혁 노력이 미흡합니다. 5대 그룹이 약속한 구조조정을 등한히 해 경제 전체에 해를 끼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합법적 개입을 할 것입니다.”

나의 경고를 의식한 듯 김 회장은 대우중공업 조선부문(현 한화오션)과 힐튼호텔 등 10여 개 핵심 계열사 및 사업을 매각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김 회장은 10조원대의 재산을 담보로 내놓는 등 추가 자구책을 내놨지만 허사였다. 결국 그해 8월 (주)대우·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등 12개 계열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다. 재계 3위였던 대우그룹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두 달 뒤 출국한 김 회장은 방랑객 신세로 해외를 2005년까지 떠돌았다.

나는 김 회장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내 의지를 경시하고, 시장 움직임을 과소평가했다. 그가 약속했던 박달 등 구조조정을 왜 망설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김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세계경영’을 외치던 샬러맨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빛을 내서 몸집을 불리고,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의 실체를 숨기는 수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김우중의 몰락과 대우 해체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은 불행한 결말이었다. 그의 성장 신화를 묻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대우 사태가 박정희식 개발 모델의 퇴장을 의미하는 사건으로 기록될지언정 말이다. 고대훈·강병철 기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시 설

‘총선 눈치’에 골든타임 놓칠 위기 맞은 연금개혁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연금개혁안에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내용을 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다. 대신 정부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식의 포괄적 구조개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 내놨다.

국민연금은 최근 적립금 100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3위로 올라섰다. 겉으로 화려한 모습이지만 속

정부, 보험료율 인상 등 알맹이 빠진 방안만 검토 ‘맹탕’ 개혁안은 무책임, 반드시 단일안 도출해야

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41년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완전히 고갈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결과다. 1990년생이 65세가 돼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처럼 연금개혁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지만 사회적 논의의 진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개혁 시나리오를 한두 개로 압축하는 데 실패하고 너무 많은 시나리오를 나열했다는 점에서 한계

가 뚜렷했다.

이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느냐, 마느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 소득 보장에는 유리하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세대의 부담도 동시에 커진다. 결국 전문가 위원회는 초안에 없던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까지 최종 보고서에 담는다고 한다. 가뜰이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 연금개혁의 시나리오가 더 꼬이게 생겼다.

정부로선 고민이 적지 않겠지만 그럴수록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단일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여라도 알맹이가 빠진 채로 형식적인 개혁안을

내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이번엔 정부가 단일안 제출에 실패하면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실질적 진전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사지선다형으로 네 가지 개혁안을 나열했을 때 당시 야당(현재 여당) 의원들이 “무책임의 극치”라며 맹비난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연금을 포함한 3대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야당도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느라 연금개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논란에도 강행하는 정율성 사업, 갈등의 씨앗만 될라

음악가 정율성 기념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번지고 있다. 지난 14일엔 광주광역시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흉상이 두 번째로 바닥에 떨어져 훼손됐다. 지난 1일 동상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윤모(56)씨가 재차 벌인 일이다.

윤씨가 처음 떨어뜨린 흉상을 두고 광주 남구청이 처리 방안을 고심해 왔는데, 그 사이 누군가 다시 흉상을 제자리로 옮겨놨다. 그러자 하루 만에 다시 밧줄을 걸어 차량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잡혔다. 정치권에서 격화한 논란이 시민 갈등으로 증폭되는 장면이다.

정율성 논란은 지난 8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북한의 애국열사릉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역사공원 사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불거졌다. 2020년 5월부터 동구의 정율성 생가 일대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해 온 광주시는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완공을 두 달 앞두고 충돌이 격해지는 양상이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광주시 등에 사업 중단과 흉상 철거를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도 광주시와 남구에 ‘정율성로’의 도로명 시정권고를 내렸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정율성(1914~76년)은 광주에서 태어나 1939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해 ‘팔로군 혁

진곡’(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음악가다. 1949년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만들어 중국과 북한에서 영웅 대우를 받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생가가 있는 광주시와 남구, 어린 시절 살았던 전남 화순에서 기념사업이 진행돼 왔다. 별로 주목받지 않던 사업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이유는 그가 한국전쟁 때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부각되면서다. 혼란의 해방 정국에서 중국과 북한에서 추앙받은 이력과 중공군으로 참전한 전력은 차원이 다르다. 보훈단체는 물론, 4·19와 5·18 관련 단체에서도 거센 항의가 나오는 이유다.

광주교육청 발간 중·고교 역사 교재에 “그의 북한 정권 및 중국인민지원군 참가 사실은 생략하거나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박용준 광주시 역사교사·자유역사교육자모임 국장)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해 왔던 일”이라며 반대 여론을 일축해 왔다. 준공이 임박한 공원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 참전에 비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음악가로서의 업적만 역설해서는 곤란하다. 기념 시설물과 표지판 하나에도 상반된 시각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대 목소리에 귀를 닫고 계속 밀어붙이면 정율성 기념사업은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만 될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

서경호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대통령께선 그냥 잘하시는 일, 잘하실 수 있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어느 경제 관료의 이 말에 크게 맞장구쳤다. 여권이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들은 얘기니, 지금처럼 대통령실과 여당 분위기가 썰렁할 때는 아니었다. 보선 결과가 나온 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부족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과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대부분 공감한다. 대통령실 위주의 국정 운영으로 인한 여당과 정부 부처의 존재감 부족, 야당과의 협치 부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온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여의도 경향이 없는 정치 신인이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검사 시절 어록처럼 워싱턴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검사의 강직함이 그를 검찰 총장으로, 대통령으로 이끌었다.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한마디로 ‘직진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의 직진 본능과 충직한 윤 검사의 검찰 상사와 그를 검찰총장에 발탁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의 ‘워싱턴’은 헌법의 가르침대로 국민박에 없다. 대통령의 직진 본능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곤혹스러워 할 대상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뿐이다.

대통령이 직진 본능을 좀 다스려서 인재를 더 넓게 쓰고, 야당과 협치도 좀 하고, 국민에게 국정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했으면 한다. 하지만 지난 1년 반의 경험으로 볼 때 정치 복원 등의 국정 쇄신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환갑 지난 사람이 달라지기는 어렵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진 본능이 꼭 필요한 곳을 향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앞서 인용한 경제 관료는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일로 구조조정을 꼽았다. 구조조정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업은 살리면서 경쟁력이 없어 문 닫아야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다. 역지로 살린 부실 기업은 금융지

원을 비롯해 시장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우량 기업의 몫까지 채간다. 지난해 말 외부감사 기업 2만5135개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 전체 기업의 15.5%였다. 망할 기업은 망해야 경제에 건강한 새 살이 돋는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건전재정 원칙을 다시 세운 점이다. 이 불황에 왜 재정을 아끼느냐고 야당은 불만이지만 나랏빚이 올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다. 당장 성장률 수치 좀 높이자고 재정과 통화를 풀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야 한다. 아쩔 수 없는 불황을 감내하는 것도 구조조정이다.

이념보다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라는 지적은 옳다. 민생은 세심하게 살피야 하지만 포퓰리즘에 뒤통을 열어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민생을 어

건전재정 원칙 되살린 건 성과 대통령 ‘직진 본능’ 항할 곳은 구조조정·구조개혁·이익집단

루만지는 내용으로 포장되곤 한다. 보선 패배로 내년 총선이 급해진 정부와 야당이 민생의 얼굴을 한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건전재정을 향한 대통령의 직진 본능을 믿는다.

대통령의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 대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정부가 강조해 온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도 대통령의 직진 본능이 필요한 분야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개혁을 하면 (잠재성장률이) 2%대로 올라가고, 그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익집단을 향한 직진 본능도 유지돼야 한다. 소수의 개별적 이익이 커서 이익집단을 기를 쓰고 달려들지만 국민 다수의 개별적 이익은 작아 나서는 이가 적다. 대통령이 국민 전체 이익의 대표자로서 직진 본능을 지켜주기 바란다. 의대 정원 확대가 그런 일이다.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통령의 직진 본능이 발휘된다면 대선 유세 때 대통령의 시원한 어퍼컷을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다시 늘어날지 모른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판매·제재사 마에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요즘
운행거리도 많지 않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너무 높아 속상하셨지요?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운행거리 만큼
보험료를 내세요~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엘리콧시티 · 락빌 · 센터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3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센터빌 (703)830-4422
13890 Braddock Rd. # 200
Centreville, VA 20120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October 18, 2023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중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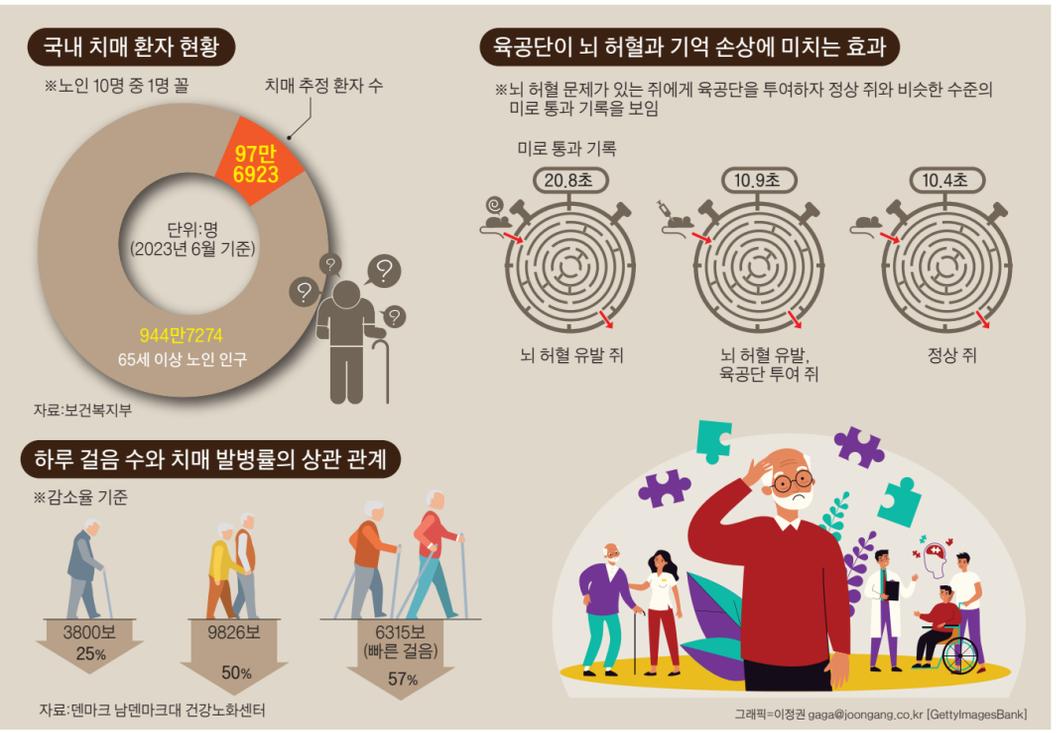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하루 평균 6000보 빠르게 걸으면, 치매 위험 57% 줄인다

10월은 나들이의 달이다.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종 축제가 성행하고 있다. 가을에는 단풍놀이도 빠질 수 없다. 삼삼오오 모여 가을 나들이를 다니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실제로 환절기 일교차 등을 이유로 집에만 머무는 것보다는 야외로 나와 활동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이는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일본 규슈대 연구팀에 따르면 타인과 사회적 접촉이 많은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전체 뇌 부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편도체의 부피도 작았다.

WHO·미국사협회, 파워 워킹 권장
치매는 암과 더불어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44만7274명이며 치매로 추정되는 환자는 97만6923명이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겪고 있는 셈이다.
치매는 지적능력과 기억력의 감퇴로 일상에 큰 지장을 준다.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전체 치매 환자의 약 70%에 육박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세포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파괴되면서 증상이 심해진다. '아밀로이드 가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불량 단백질이 서서히 쌓이면서 치매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치매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15~20년 전으로 본다. 의료계에서 40~50대 중년 시절부터 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중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성 심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뇌에 영향 심혈관질환 관리 필요
걷기·유산소운동, 신경 성장 촉진
침 치료하면 뇌 기능 활성화시켜
공진단도 뇌 신경세포 손상 방지

관계 질환 또한 치매에 악영향을 준다.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압을 수축기 130 mmHg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규칙적인 수면과 식생활, 적절한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신체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매 예방 지침으로 삼을 정도로 중요하다. 무엇보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 혈액과 산소,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각종 신경인자들의 자극으로 이어지고 신경 성장을 촉진한다. '미국사협회 신경학회지(JAMA Neurology)'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9826보를 걷는 사람은 7년 이내에 치매

에 걸릴 확률이 5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은 파워 워킹처럼 빠르게 걷기를 권장했다. 1분에 40보 이상의 속도로 걸으면 하루에 6315보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57%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도 하루 약 3800보 걸었을 때 치매 위험은 2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운동 외에도 뇌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허증(虛證)'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본다. 허증 치매는 뇌의 노화로 인한 것으로, 뇌 신경 활성화와 원활한 혈액 순환을 위해 한약 처방과 침 치료를 실시한다.
왕오호 목동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4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Centreville
정요한 안과 전문의 JOHN CHONG, M.D.
센터빌에 위치한 정요한 안과는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눈에 대한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족적인 안과**입니다.
전공 / 경력
• 소아 안과 특별 연구원 수료
Pediatric Ophthalmology Fellowship at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 미국 안과 전문의 자격
Certified by the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 조지 타운 대학병원에서 안과 레지던트 수료
Ophthalmology Residency at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 조지 워싱턴 의과대학 (MD) 졸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Health Sciences
원장 정요한 Dr. John Chong
예약문의 571-210-5535 **진료시간 8:30 AM-4:30 PM (월-금)**
5900 Fort Drive, Suite 301, Centreville, VA 20121 www.vapoeyes.com/korea
Dulles Airport, Old Centreville Rd, Lee Hwy, Fort Dr, 버거링, Manassas

찬바람이 무서운 천식 환자, 증상 없어도 꾸준히 치료제 사용해야

천식 다스리는 법 천식은 찬 바람이 불 때 더욱 괴로운 질환이다. 차가운 공기가 호흡기를 자극하면서 기침과 쌉쌉거리는 증상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날카로운 호흡'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만큼 숨 쉬기가 힘들다. 완치 개념이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인데 감기나 독감도 걸리기 쉬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 천식 관리에 특히 힘써야 하는 이유다.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천식 관리법을 알아본다.

신영경 기자

천식은 숨길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일상을 괴롭힌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나 찬 공기 등 자극에 노출됐을 때 기관지 염증으로 기도가 수축해 정상적인 호흡을 방해한다. 숨이 차는 것은 물론 기침과 쌉쌉거림(천명), 가슴 답답함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모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증상들이다. 처음엔 비교적 증상이 가볍지만,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면 중증으로 진행된다.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태범 교수는 "천식 증상은 낮보다 늦은 밤에 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며 "만성질환이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특별한 증상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폐기능 검사 연 1회 이상 필요

천식은 증상 기록이 중요하다. 별다른 증상이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인지 증상이 없으면 상태가 좋아졌다고 오해해 질환을 방치하는 환자가 많다. 하지만 천식은 중증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천식 환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진료를 받으면서 조절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천식 조절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폐기능 검사도 연간 1회 이상 필요하다. 증상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건 위험하다. 김 교수는 "천식 치료에는 증상 조절제와 완화제가 있다"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전문의와 상의해 치료제를 오랜 기간 지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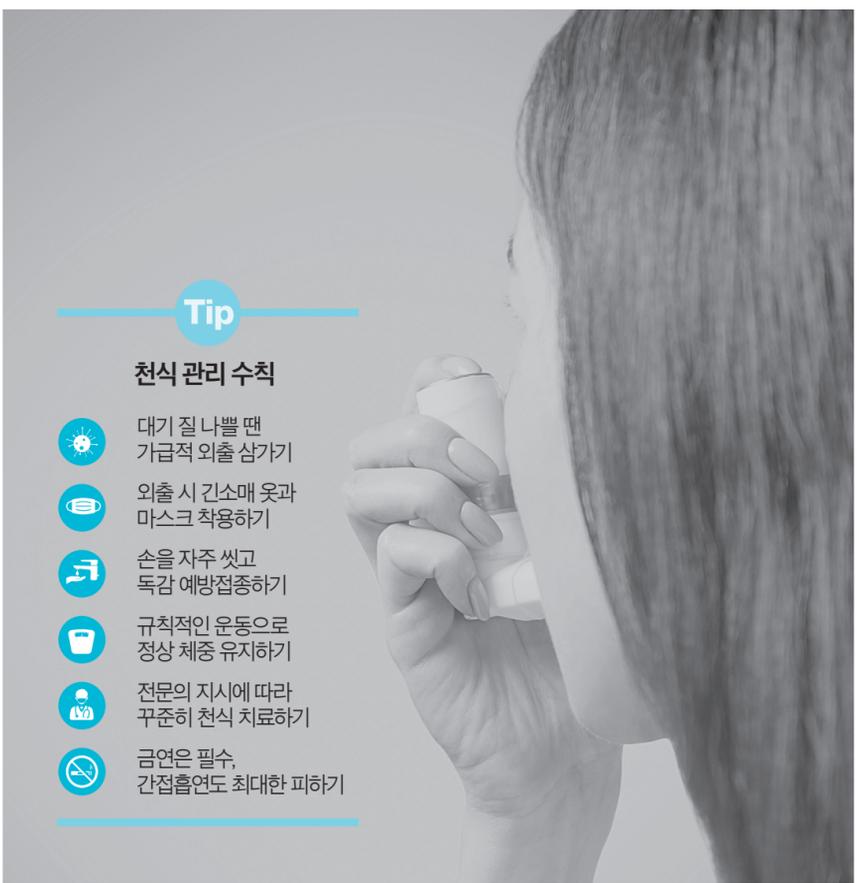
증상 조절제인 흡입용 스테로이드제는 천식 치료의 핵심 약제다. 항염증제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다. 기도의 염증을 치료해 천식 증상을 조절하는 원리다. 먹는 약이나 주사보다 적은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흡입제 형태여서

사용 방법이 까다롭지만 꾸준히 써야 천식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하루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사용한다. 김 교수는 "흡입제는 기도와 폐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천식을 치료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걱정해 임의로 치료제 사용을 중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단, 기관지를 빠르게 확장해 주는 증상 완화제는 증상이 심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독감 예방접종, 금연·운동 필수

천식 환자에겐 감기나 독감도 요주의 대상이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대처 능력이 부족한 탓에 일반인보다 감기·독감에 더 취약하다. 천식이 심한 경우 감기만 걸려도 숨이 막혀 위협적인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진다. 호흡기 질환으로 폐기능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매년 독감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감기약을 먹을 때도 천식 치료제 사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손 씻기 등 개인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천식은 개인마다 원인과 증상이 다르다. 김 교수는 "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다"며 "원인 항원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 등을 통해 악화 인자를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 연기와 찬 공기, 대기 오염 물질 등은 천식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금연은 필수다.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실내 환기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창문을 열지 말고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 Tip**
- 천식 관리 수칙**
- 대기 질 나쁠 땐 기급적 외출 삼가기
 - 외출 시 긴소매 옷과 마스크 착용하기
 - 손을 자주 씻고 독감 예방접종하기
 - 규칙적인 운동으로 정상 체중 유지하기
 - 전문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천식 치료하기
 - 금연은 필수, 간접흡연도 최대한 피하기

것이 좋다.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긴 소매 옷과 마스크 등을 착용해 외부 알레르기 항원과 접촉을 줄여야 한다. 침구류 위생도 철저히 신경 써야 한다. 주기적으로 침구류를 세척하거나 교체하면서 집먼지진드기가 서식할 수 없도록 실내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운동에 대한 오해도 적잖다. 천식을 앓고 있을 땐 숨 쉬기가 힘들어 신체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천식 환자여도 적절한 운

동은 필요하다. 무조건 운동과 거리를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운동 부족은 소아 성장을 저해하고 비만을 부르면서 천식을 악화시킨다. 운동을 심하게 할 땐 증상이 악화할 수 있지만 적정 강도를 유지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식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은 실내 수영이다. 온도와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기 때문에 기관지를 자극하지 않는다. 공기가 차고 건조한 새벽엔 운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기고 이준영 서울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기 진단·치료 중요한 알츠하이머 치매, 국가 차원 지원 늘어야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의 50~70%를 차지하는 제일 흔한 치매 유형이다. 발병 후 점점 악화하는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조기 진단·치료가 중요하다.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를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대로 빠르게 발견해 관리하면 질병 진행을 지연·중단시킬 수 있어 호전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엔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

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발병 위험이 10~20배 더 높다. 경도인지장애도 치매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중 기억력 상실이 주요 증상인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다.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해 초기 알츠하이머병 단계에서 치매를 관리하면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치매 관리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



터의 자료에 따르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매 환자와 가족은 향후 8년간 약 6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2020년 기준으로 쓰이는 국가 치매 관리비용은 17조3000억원 수준이다. 현재 같은 치매 환자 증가 추세라면 2030년에는 31조8000억원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포착해 치료하면 질병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사회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가면서, 최근에는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초기 알츠하이머병 단계에서 보다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뤄져 치매로

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향후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치매는 이제 환자나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이제 막 첫걸음을 댄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앞으로 치매 중증화 예방 및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초기 알츠하이머병 단계의 환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더 많은 환자가 추후 도입될 신약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53.3%	42.9%	2.3%	0.0%
대우총동	당뇨	노화사각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sciatca, 좌골신경통

영치, 꼬리뼈

얼드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쥐

toes cramps 발가락,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통지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피지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혜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일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도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청년기엔 잘못된 자세가, 노년기엔 골밀도 저하가 '백년 척추' 위협

척추 건강 지키기 척추 질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2021년 척추 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척추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 평균 진단 연령은 2012년 41.8세에서 2021년 36.9세로 낮아졌고, 평균 수술 연령은 2012년 55.1세에서 2021년 60.5세로 높아졌다. 인생 전반에 걸쳐 척추 건강에 신경 쓰지 않으면 지속적인 통증으로 일상에 큰 불편을 겪는다. 세계 척추의 날(10월 16일)을 맞아 100세까지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질환 포인트를 짚어봤다.

김선영 기자

청소년기 척추측만증

33개의 뼈로 구성된 척추는 몸을 지탱하고 평형성을 유지한다. 뒤에서 보면 반듯하고 옆에서 보면 S자형으로 약간 굽었다. 청소년기에 가장 주의할 질환은 척추측만증이다. 척추뼈가 3차원적으로 10도 이상 좌우 S자로 휘는 병이다. 전체 환자의 80~85%가 청소년기에 원인 없이 우연히 발생한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이정희 교수는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활용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며 "자연스럽게 잘못된 자세를 하고 척추 움직임을 최소화해 척추 변형을 가속화한다"고 지적

했다. 척추측만증은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흔하다. 특히 ▶바로 서 있을 때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를 경우 ▶똑바로 섰을 때 골반 높이가 다른 경우 ▶치마·바지를 입었을 때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신발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한쪽 바닥만 더 많이 닳는 경우 ▶바로 누웠을 때 발끝 위치가 다른 경우 ▶양쪽 가슴의 크기 혹은 높이가 다른 경우 ▶날개뼈의 한쪽이 더 튀어나와 있거나 갈비뼈가 비대칭인 경우 ▶양발을 붙이고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등이 기울어져 보이는 경우 방지하지 말고 병원에 가야 한다.

척추 만곡이 20도 미만이라면 특별한 치료 없이 4개월~1년 간격으로 X선 검사로 경과 관찰을 한다. 이때 각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20도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보조기를 착용한다. 보조기 사용으로 만곡 각도를 줄이거나 진행을 늦추고 자세 교정과 운동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40~50도 이상 휘어졌다면 심폐 기능 저하, 통증과 같은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2030 목·허리 디스크

최근 젊은 층에서도 척추 질환을 앓는 이들이 늘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변 신경외과 최두용 교수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과도한 사용과 잘못된 생활습관, 장시간 앉아 있는 환경, 늘어나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최근 20~30대 젊은 척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다. 추간판의 가장자리엔 질긴 섬유륜이, 가운데엔 연한 젤리와 같은 수핵이 있다. 퇴행하거나 외상을 입으면 섬유륜이 손상되고 수핵이 섬유륜 틈새로 빠져나와 인접한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한다. 허리 통증은 기본이고 신경을 따라 경추는 팔과 손, 요추는 다리와 발까지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다. 청년기엔 허리·등뼈의 요추부 염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흔하다. 주로 외상을 입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허리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발생한다. 요추부 염좌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을 촉진해 디스크로 악화하기 쉽다.

신경 증상이 심하지 않은 디스크는 대부분 증상이 저절로 호전된다. 아니면 약물·물리 치료, 운동요법과 같은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치료로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면 경막외 주사, 신경근차단술 등 주사요법을 시도한다. 수술은 보존적 치료나 주사요법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사지 근력이 약해졌을 때 고려한다.

4050 척추전위증

나이가 들면 외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상하 척추 연결 부위가 약해지는 현상을 겪는다. 이때 인접한 척추체의 정렬이 어긋나면서 하나의 척추체가 인접 척추체보다 앞 또는 뒤로 밀리는 척추전위증이 나타날 수 있다. 뼈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인대·디스크·근육의 약화로 척추를 고정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특히 문제다.

척추전위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요추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척추뼈가 앞으로 빠진 정도가 심한 사람은 허리의 특정 부위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충이 느껴질 수 있다. 복부 중앙 부분이 돌출되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보행 시 뒤통뒹뒹 걷는 듯한 걸음걸이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척추전위증이 발생하면 보통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한다. 앉아 있을 땀 증상이 없다가 걷기 시작하면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을 느낀다. 심하면 엉덩이나 하지에 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침상에서 쉬면서 허리를 안정시키고 통증을 덜어줄 수 있는 진통제를 복용한다. 물리·주사 치료도 도움된다. 통증이 호전되면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병행한다.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어긋난 정도가 악화할 땐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로 척추뼈를 하나로 융합해 밀려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경이 눌리지 않게 된다.



2030은 스마트폰에 목·허리 디스크 나이 들면 퇴행성 척추전위증 많아 평소 자세 바르게 하고 걷기 운동을



노년기 척추압박골절

건강한 척추뼈는 강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노화로 뼈가 약해지면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취약해진다. 특히 요추 골절은 고령층에서 빈번한 척추 질환이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가 아니라 간격을 유지하면서 있어야 할 뼈가 외부 충격으로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골밀도가 낮아 골다공증에 취약한 고령자와 폐경기 여성이 요추의 대상이다.

문제는 척추압박골절이 통증과 척추 변형을

유발해 장애와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척추뼈에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척추체 앞쪽 높이가 계속 감소해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는 척추후만증을 유발함에 따라 보행이 힘들어지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떨어뜨린다. 최 교수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척추·고관절·손목 등 다양한 부위에 골절이 발생해 수술하거나 수술 합병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며 "평생 관리하고 치료하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성 골절이라면 보존적 치료를 2~3주가량 한 다음 골다공증약과 칼슘, 비타민D를 활용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통증이 줄면 허리 보조기를 착용한 채 보행 연습에 나선다. 이런 치료에도 통증이 심하거나 척추체 높이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면 국소마취 상태에서 주사로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도할 수 있다.

Tip

일상에서 지켜야 할 척추 관리법

1 자세 교정
바른 자세로만 앉아도 척추·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대 30%가량 줄일 수 있다. 엉덩이가 등받이에 밀착되도록 의자 깊숙이 앉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며 구부린 무릎 각도를 90도로 유지한다.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도록 30분 단위로 끊어 앉는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자세를 피한다. 앉을 때 다리 꼬는 습관은 허리 건강의 최대 적이다.

2 운동 실천
평소 몸을 자주 움직이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척추나 허리 강화에 도움을 주는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40~50분씩 약간 빠르게 걷는 정도를 추천한다. 수영·자전거 타기도 좋다. 척추 근육을 강화하면 신체 전반 근육의 양과 질을 향상할 수 있고 이것은 신체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무거운 물건을 드는 근력운동은 피한다.

3 체중 관리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척추에 가중되는 부담이 커진다. 비만이면 근육보다 지방이 많고 근력이 약해 근육이 척추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복부 비만일 경우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요추와 디스크에 압박이 가해지기 쉽다. 척추 질환을 예방하려면 과체중, 특히 배가 나오지 않게 식이 조절하는 게 도움 된다.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역촌 앞 7700 건물 6층**

비용·수술 부담 낮춘 올온엑스, 임플란트 4개로 틀니서 해방

병원 탐방 더와이즈치과병원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모씨는 한동안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 노화로 치아를 대부분 상실하면서 틀니를 끼게 됐는데 사람들과 대화 도중 떨어지는 일이 잦아서다. 언제 틀니가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화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틀니 탓에 웃입술이 튀어나와 보이는 것도 타인과의 만남을 꺼리는 원인이었다. 안 되겠다 싶어 임플란트를 하려 동네 치과를 전전했지만, 잇몸 뼈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치료 불가능 진단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 사이 잇몸 뼈 상태는 더 나빠졌고 행여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도 임플란트 개수가 많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7년간 틀니를 끼던 김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더와이즈치과병원을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그간의 시름을 덜어줄 치료법을 제시했다. 올온엑스(All on X) 기법이다. 김씨는 “잇몸 뼈 상태가 좋은 곳에 임플란트 5개만 심고 보철물을 연결해 치아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다”며 “틀니에서 해방된 것도 기쁘지만 임플란트 개수와 잇몸 뼈 이식 양이 적어 가격이 합리적인 점도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임플란트 심어

일반적으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고정된 전체 임플란트를 할 경우, 8~10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연결해 12~14개의 치아를 만든다. 이때 환자는 각종 부담에 시달린다. 다수의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한 비용 부담, 잇몸 뼈 이식에 따른 수술 부담, 긴 치료 시간과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부담 등이다.

반면에 더와이즈치과병원의 올온엑스 기법은 잇몸 뼈 상태를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4~6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하나로 연결된 보철물을 올려 전체 치아를 회복한다. 이때 올라가는 보철물의 개수는 치아 12~14개 수준이다. 더와이즈치과병원 임세웅 원장은 “잇몸 뼈가 좋은 곳을 선별해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 고정성 임플란트 치료보다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적다”며 “뼈 이식에 대한 비용과 수술 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뼈 이식을 최소화하면 수술 후 통증이나 부기 등 부작용은 물론 잇몸이 회복되고 치료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도 감소한다. 이 때문에 치과 공포증이 있거나 직장생활로 잦은 치과 내원이 힘든 이들도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고통의 환자라도 걱정할 필요



더와이즈치과병원의 임세웅 병원장은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 단계를 최소화해 잦은 내원이 힘든 해외·지방 거주자들도 문제없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동하 객원기자**

는 없다. 철저한 정밀 검사와 감염 관리를 토대로 개인에 적합한 치료 계획을 제시해서다.

임 원장은 “치료 후에는 틀니를 낄 때의 이물감과 잇몸 눌림, 불규칙한 탈락도 더는 겪지 않게 된다”며 “보철물을 하나로 연결한 고정성 임플란트라 평상시 털그럭거리거나 빠지지 않고, 아랫입술이 눌러 통증이 유발되는 일도 없다”고 말했다. 개인 잇몸 라인에 맞춘 지대주(치아 모형의 보철물인 크라운과 뿌리 부분인 픽스처를 연결하는 장치)로 심미적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자연치아 수준으로 씹는 힘 회복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 식립 개수가 적다고 해서 저작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올온엑스 치료를 하고 나면 자연치아의 씹는 힘과 비슷한 수준까지 저작력을 회복할 수 있다. 씹는 힘이

20~30%밖에 되지 않는 일반 틀니보다 저작력이 우수한 셈이다. 임 원장은 “결과적으로 올온엑스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단점을 보완한 효율적인 치료 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더와이즈치과병원은 잇몸 뼈 훼손 등의 이유로 임플란트 식립 불가 판정을 받은 이들도 특화된 뼈 이식 기술을 적용, 임플란트가 가능하도록 이끈다. 위턱 어금니 부근의 상악동이 내려와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상악동이 내려와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부족하면 상악동 거상술을 한다. 상악동 거상술을 할 경우 잇몸을 절개하고 상악동의 하방벽을 위로 들어 올려 인공 뼈를 이식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얇은 상악동 막에 구멍이 뚫려 염증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절개와 이식, 봉합 과정에서 감염 등 여러 의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점을 고려해 더와이즈치과병원에서는 ISI(Internal Sinus Injection) 기법을 활용한다. 절개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는 위치에 수직으로 드릴링해 작게 구멍을 뚫은 다음, 특수 주사기로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며 잇몸 뼈를 이식하는 방법이다.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이뤄지고 수술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다. 절개가 없으니 통증과 부기, 멍이 덜한 편이고 회복 시간 또한 빠르다.

임 원장은 “일반 틀니를 편하게 사용하는 고령층도 있지만, 대부분은 잇몸 통증과 대인관계에서의 불편함을 호소한다”며 “이런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치료법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은 덜어주고 만족감은 높여주려는 게 우리 병원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온엑스 치료를 통해 즐겁고 편안하게 밥을 먹고 틀니로 인해 불편했던 대인관계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수 기자

김씨의 임플란트 치료 전후



올온엑스 기법으로 5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연결해 상악 전체 치아 기능을 회복했다. [사진 더와이즈치과병원]

▶1면 '치매'에서 이어집니다

주로 기억력 증진과 노화 방지를 위해 공진단을 처방한다.

공진단의 치매 예방 효과는 연구로 입증된 바 있다. 최근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공진단이 장수 유전자로 알려진 '시트루인1'의 발현을 증가시켜 신경보호 및 재생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단의 뇌 기능 향상 기전이 세포 실험을 통해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 연구진은 공진단이 항산화 작용과 뇌 신경세포 DNA의

손상 예방 효과를 보이며 뇌유래신경인자, 신경성장인자의 발현을 높인다는 결과도 확인했다.

2004년 자생한방병원과 미국 어바인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실험 연구에서도 공진단에 육미지황탕 처방을 더한 '육공단'의 뇌 기능 활성화 및 뇌세포 손상 방지 효과가 밝혀졌다. 연구진은 뇌 허혈을 유발한 쥐 중 일부에 육공단을 투여한 뒤 수중 미로 행동실험을 했다. 그 결과 육공단을 먹인 쥐들의 미로 통과 기록이 뇌 허혈 쥐 기록보다 2배 가까이 빨랐다. 이는 뇌 허혈 문제가 없는 정상 쥐의 기록과 비슷했다. 또한 연구팀

은 육공단을 먹인 쥐에게서 뇌세포를 재생·증식시켜 뇌 기능을 회복하는 Egr1 단백질이 크게 증가한 사실도 발견했다.

40~50대부터 치매 예방 노력해야

침 치료 또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이 SCI(E)급 국제학술지 '최신노화신경과학(Frontier in Aging Neuroscience)'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침 치료가 경도인지 장애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도인지장애는 몇 년

내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전기침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생성량을 감소시키고 해마의 신경세포 손상을 완화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치매는 증상 완화나 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만큼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최근 “한의사들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로써 한의학에서도 현대기 사용이 더욱 자유로워져 국민의 치매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전전두

엽 뇌파만을 이용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치매 환자에게는 기억력 감퇴 말고도 우울증 등 각종 행동정신증상 또한 찾아올 수 있다. 감정 조절과 표현에 문제가 생기면서 환자 본인 외에 가족, 보호자, 주변인에게도 아픔을 준다. 결국 치매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사회구성원 각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강구해볼 시점이다.

왕호호 목동자생한방병원 병원장

뉴핏뉴스 & 리치몬드 케어피플 간병사 서비스 확대 케어피플 사랑방 오픈

케어피플 홈헬스

한국인 간병사 서비스 (VA & MD) 간병사 교육

715 Kanawah Run Yorktown VA 2369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간병사 서비스 신청과 간병 교육 및 일자리를 당신의 셀폰 인터넷 CarePeople.net 으로 간편히 신청 가능합니다.

14631 센터빌 #401

매난데일 사랑방 4306 #104

매난데일 베트남 4312 #D 2층

게이더스버그 901 #150

VA& MD - 한인 간병사 서비스 신청 및 간병사 교육 및 취업 문의 가능합니다.

센터빌 본사
571-297-4747
14631 Lee Highway, Suite #401
Centreville, VA 20121

매난데일 사랑방
571-297-4747
4306 Evergreen Lane, Unit #104
Annandale, VA 22003

매난데일 베트남 사무실
703-506-333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메릴랜드 사무실
301-966-700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월-금(M-F) 9am~5pm
24hrs on call
571-297-4747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의학 칼럼

뒷골이 아픈 후두신경통

48세 남자 환자가 뒷골이 땅기며 아프다며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얼마전 고혈압으로 진단되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혹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이 아닌가 걱정을 하였다.



임정국
신경내과 임상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환자는 뒷골이 언제부터가 찌릿 찌릿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아프며 뒷목 또한 뻣뻣하게 느껴지며 아프다고 하였다. 가끔씩 날카로운 통증이 순간적으로 뒷머리에서 정수리까지 뻗치기도 하는데, 보통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분간 계속된다고 한다. 환자는 간혹 눈언저리까지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한 경우 눈도 매우 침침해진다고 하였다. 심한 두통과 더불어 어지럼증도 가끔 생긴다고 한다.

환자의 경우 목뒤 근육이 매우 심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뒷목과 머리 뒤의 여러 부위에 압통점이 있었다. 통증의 분포와 특징적인 찌르는 듯한 통증의 양상을 볼때 환자의 두통은 “후두신경통”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걱정대로 뇌출혈이나 다른 형태의 뇌 병변을 감별하기 위해서 먼저 뇌자기공명사진을 의뢰하였으며, 다행히도 뇌실질의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의 경우 후두신경통에 대한 약물치료가 시

행되었으며 얼마간의 치료로 환자의 두통은 잘 조절될 수 있었다. 때로는 후두신경 차단술과 같은 침습적 치료 방법도 적용될 수 있으나, 환자의 경우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불필요하였다.

후두신경통이란 머리의 뒷부분(후두부)과 목 뒤쪽(경추부)에 분포하는 후두신경을 따라서 생기는 통증을 말한다. 말그대로 신경의 이상에서 나오는 통증으로 곧 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다. 후두신경은 상부 경추에서 시작하여 그 주행을 따라 대후두신경과 소후두신경으로 나뉘어진다. 목뒤와 뒷머리를 따라 올라가 머리의 가운데 부위로 올라가는 대후두신경, 그리고 귀 뒤를 통해 머리 측면으로 분포하는 것이 소후두신경이다.

후두신경통은 후두신경의 압박이나 염증으로 발생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제 1,2경추 축관관절의 만성적인 관절염증이라고 한다. 장기간의 컴퓨터 업무, 좋지 않은 자세 등, 경추의 이상 및 목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부르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그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쉽게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

▷상담 문의 :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몸속에 돌이? 담석증의 무서움

담석증은 미국 전체 인구의 10~15%에서 발병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증상이 복부 통증으로 나타나다 보니 소화불량, 위경련 등으로 가볍게 생각하다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이 있지만, 위내시경 등 위장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담석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담석증 증상은 주로 극심한 상복부 통증이며, 갈비뼈 아래부터, 우측 날개뼈와 어깨로 통증이 퍼지기도 하고, 메스꺼움, 속 쓰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흔히 쓸개로 불리는 담낭은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간 아래 있는데, 간에서 생성된 소화액인 담즙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공복시 담즙을 저장하고 있다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지방 분해와 소화를 돕기 위해 담즙을 배출하며, 담즙은 이동 통로인 담관을 통해 소장으로 흘러 내려 간다. 하지만 담낭이나 담관에 담석, 즉 돌이 생기게 되면 담관이 막히거나 담낭 벽이 자극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담즙은 콜레스테롤, 빌리루빈, 담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나 빌리루빈이 포함되어 고체상태로 굳어지면 담석이 형성된다. 담석의 80%는 콜레스테롤 담석으로, 비만한 경우, 반대로 급격한 체중 감소도 담석 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는 색소성 담석인데, 이 갈색 또는 흑색석은 용혈 상태에서 혈액의 분해를 유발하는 빌리루빈이 증가하면서 만들어

진다. 담석증은 특히 히스패닉,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서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최근 한국인들의 담석증 환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담석증은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추가로 MRI나 담관조영술, CT 스캔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석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80%는 무증상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을 통해 담낭을 제거하는 것이다. 담낭 자체가 제거되지 않으면 담석이 또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담낭 제거는 과거에는 개복수술로 진행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복강경으로 시행해 환자의 부담이 적어졌다. 수술시간이 짧아 대부분 수술 당일 혹은 다음 날 퇴원하며, 통증이 적고 흉터도 적게 남는다. 회복도 빨라 대부분 2주 정도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담낭을 제거하더라도 간이 음식을 소화하기에 충분한 담즙을 만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담낭 제거 후 특별한 식단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지방, 고가공식품은 피하고 지방이 적은 단백질, 과일, 야채,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등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수술 후 일부 환자들은 복부팽만이나 설사와 같은 문제를 겪기도 하지만 대부분 몇 주 안에 증상이 호전된다. 만약 특정 음식과 음료가 이러한 증상을 유발한다면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렌탈 아래세 외과 전문의(MD) · LA 할리우드 차병원

한방 칼럼

호흡기 질환 (1)



권진열
해민한의원 원장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코로나가 오거나 목 감기, 코 감기, 기침 감기, 몸살 감기 등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목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학에서 이야기 하는 경혈점 중 풍문이라는 혈이 목 부분에 있는데, 외부의 찬 기운이 들어오는 문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목이 찬 공기에 접촉되면 찬 기운과 함께 바이러스가 침입하기 쉬워진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목 부분을 가릴 수 있는 turtle neck 옷을 입도록 권장하고 있다.

어느 부분을 설정해서 그 부분이 전신을 대신 하기 때문에, 그 상응부를 자극하는 침을 놓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공(ball) 모양의 작은 단단한 것으로 누르면, 실제로 좋은 반응을 나타낸다. 얼굴을 설정해서 얼굴에 침을 놓을 수 있고, 손가락 부위를 설정해서 할 수 있고, 귀 부위를 설정하기도 하고, 팔을 설정해서 해당 부위를 자극하면 감기 증상은 해소되고, 또 예방도 가능하다.

최근에는 JB 볼을 팔에 붙여서 누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우선 한의원 사무실에 환자가 오면, 해당 자리에 침을 놓고, 해당부에 동그라미나 점을 찍어준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부분을 누르거나 자극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스스로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다.

보통 감기의 경우에는 팔이 범위가 넓고 잡기가 쉬워서, 팔을 설정해서 전신의 몸으로 간주하고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장 근육이 압박을 받으면 심장의 pmping활동이 느려지므로, 위장이나 폐 목구멍 두뇌 코 등으로 원활히 피를 보내려면, 심장에 해당되는 엘보우 아래 심장 해당부를 자극하면 순식간에 심장의 활동이 원활하게 바뀐다. 감기로 인해 생긴 고열도 내려가게 된다.

또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장 혈은 팔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곳을 눌러서 자극을 주면 된다. 감기는 또 호흡기와 관계되므로 오른쪽 팔의 폐 상응점을 자극하고, 해독시키기 위한 간의 자리는 오른쪽 중앙에 위치한다.

기침이 난다면 엘보우의 인후 관련 혈을 자극하거나 지압하면 기침은 순식간에 멈추게 된다. 이렇게 심장, 폐, 대장, 간, 인후 그리고 코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하거나 침을 놓으면 감기로 인한 여러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소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약물을 안쓰니 그 부작용도 없고, 자가요법도 되니 편리하게 이용하기 바란다.

▷ 문의 : 301-922-9239

건강 칼럼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는 주로 학령기 아이들에서 나오는 진단이나 요즘은 성인에서 이 문제로 진료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문제가 점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진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것, 또 경쟁사회에서 자기 분야에서 더 집중해서 일에 성취를 높여야 하는 사회적 압력도 있다고 보인다.

진단에는 세 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 우선 주의력 결핍이다. 집중이 안 되고 쉽게 산만해지고 잡 생각, 잡념이 끌려다닌다. 두 번째는 과잉행동이다.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고 수업시간에 계속 말을 한다든가, 신체 부위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든가 등 과다행동을 보인다. 세 번째 측면이 충동성인데, 생각 없이 즉흥적,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는 경우이다. 세 가지가 모두 있을 수 있고 과잉행동은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진단은 임상적인 ‘병력’을 들어 보면 가장 확실할 수 있다. 질문지 등에 의한 검사는 본인이 ADHD가 있다고 진단받고 싶어하는 경우, 거의 의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도 있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ADHD 문제로 진료실을 찾는 성인의 경우, ADHD라고 진단받고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로 검사의 신빙성이 없겠다. 그래서 유년기부터의 병력을 잘 청취하는 편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게 진단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해 보면, 먼저 과잉행동이 좀 줄어들고, 다음은 충동성

이 좀 잦아드는 경향, 그러나 주의력 결핍은 제일 오래간다. 그리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소나 완화하는 요소를 잘 살펴봐야 한다.

주의 집중이란 정신적 상태의 종합적 산물이기 때문에 ADHD 진단 이외에도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 혹은 술이나 약물 남용 등이 있는 경우, 우울증 상태에서도 자연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완화하는 요소로 꾸준한 유산소 운동 습관은 두뇌에 집중에 필요한 도파민 농도를 자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 집중하려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몸이 피곤하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진다.

치료 약물들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아도메세틴이 있다. 주로 노어 에페네프린을 증가. 약 효과는 제일 순하고 부작용도 순한 편이다. 가장 일반적인 주류의 약은 메틸페니데이트 계통으로 리탈린, 콘스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약효도 부작용도 중간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가장 효과가 강한 것으로는 암페타민 제제로 아데를, 바이벤스 등이다. 이는 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데, 효과도 가장 높고 일반적으로 부작용도 더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기타 부류로는 교감신경계 작용하는 테넥스, 또 항우울제 중에서 웰부트린 등이 쓰일 수 있겠다. 약물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작용, 부작용을 잘 추적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는 동시에 부작용은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엔 혹시 남용할 가능성에 대해 유념해 두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김자성 전문의 · LA 김자성 정신과

① 위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 infokddc@gmail.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켈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주요인근에서 3분, 샐러스프링 롯데 아울렛 센터빌+매트에서 10분, 가리 센터빌 롯데/인어빌+매트에서 10분, 가리 센터빌 롯데/인어빌+매트에서 10분, 가리 센터빌 롯데/인어빌+매트에서 10분, 가리

양아빠와 질편한 커플 춤... 파격적인 '19금 오페라'

1905년 초연된 슈트라우스 작품

엄마가 죽은 아빠의 동생과 재혼을 했는데 엄마의 새 남편, 즉 삼촌이 소녀에게 추근댄다. 지저분한 집구석에 질린 소녀는 엄마의 음탕함을 꾸짖는 순결한 예언자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대쪽 같은 그를 죽여서라도 소유하고픈 소녀는 삼촌에게 섹시댄스를 취 주고 은쟁반에 담긴 예언자의 목을 요구한다.

최신 막장드라마 시놉시스인가 싶지만, 1905년 나온 오페라의 서사다. 지난 6일 막 올린 대구국제오페라축제(예술감독 정갑근) 개막작 '살로메'다. 베르디나 푸치니의 주인공들은 마음만 먹으면 금세 볼 수 있지만, 팜므 파탈의 대명사인 살로메는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 슈트라우스의 오페라가 국내에서 잘 공연되지 않는 탓이다. 1994년 정명훈이 이끈 바스티유오페라단 내한공연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제작된 역사는 2008년 국립오페라단 초연 등 한손에 꼽힌다.

총격적인 19금 시놉의 원전은 성서다.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오스카와 일드가 퇴폐적이고 탐미적인 드라마로 각색하고, 슈트라우스가 음악을 입혀 1905년 초연했다. 15편의 오페라를 남긴 슈트라우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준 첫 성공작이자 파격적인 스타일로



세계 정상급 연출가 미하엘 슈투르미어가 연출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로메'는 시그니처 장면인 '일곱 베일의 춤'과 세례요한의 죽음 등을 파격적으로 재해석했다. [사진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현대 오페라 시대를 연 작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뉴욕 메트 등 유수의 오페라극장에서 음란물로 낙인찍혀 20여년간 공연 불가 판정을 받기도 했던 문제작이기도 하다.

빈 폭스오페 지휘자 로렌츠 아이히너가 이끄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독일어권 최고의 살로메로 꼽히는 소프라노 안나 가블러와 헤로디아스 역의 메조소프라노 하이케 베셀, 헤롯왕 역의 테너 볼프강 아블링어 슈페르하케, 요한 역의 바리톤 이동환이 함께 고품격 무대를 빚어냈는데, 영화감독이기도 한 미하엘 슈투르미어의 연출력이 발군이였다. 슈투르미어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빈 슈타츠오페 등에서

활약하는 세계 정상급 연출가로, '살로메'로 2018년 오스트리아 음악극상 최우수 오페라 작품상을 받았다.

오페라는 옛날 이야기에 입혀진 고전 음악을 현대인의 시선으로 감상하기에 곤란 인지부조화가 발생한다. 그런데 20세기 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살로메'는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가 가장 원하는 오페라가 된 것 같다. 기원전 30년경의 이야기를 초현대적인 무대로 뽑아낸 덕이다.

고대 왕궁이 아니라 재벌가 대저택 같은 세트에, 의상도 왕족과 병사, 시종이 아니라 요즘 부자들의 파티 스타일과 비서, 경호원의 차림새다. 오직 세례요한만 고대로부터 타임슬랩해 천지개

벽한 세상에 적응 못하는 듯한 모양새가 딱 '별에서 온 그대' 같다.

'살로메'의 진가는 시그니처 장면인 '일곱 베일의 춤'에서 드러난다. '관현악의 마법사' 슈트라우스다운 도발적인 연주곡에 맞춰 살로메가 관능적인 춤을 추며 한 겹씩 옷을 벗어 알몸이 되는 연출이 통상적이라 '19금 오페라'로 통한다. 그런데 이 무대에서 옷을 벗는 건 살로메가 아니라 헤롯왕이다. 왈츠 음악에 동양적 선율이 교차하는 오묘한 분위기 속 펼쳐지는 두 남녀의 위험한 2인무는 그 어떤 무용작품의 그것보다 인상적이었다. 뇌쇄적인 춤이 아니라 합합스러운 파워풀한 춤을 추는 살로메는 마치 헤롯왕을 춤추게 하는 지

휘자 같았다.

가사 한마디 바꾸지 않고 기원전 옛날 이야기를 완벽한 현대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도 경이로움이다. 슈투르미어가 창조한 우리 시대의 살로메는 단순한 팜므 파탈은 아니었다. 견딜 수 없이 부정확한 환경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된 사이코패스였다. 살로메를 죽이라는 헤롯왕의 명령에 나타난 병사들이 헤롯 일가를 몰살시키는 엔딩은 마치 영화 '기생충'과도 같은 감흥을 줬다.

월드클래스 완성도로 뽑아낸 이번 무대는 왜 '살로메'를 현대오페라의 시작이라 하는지 제대로 보여줬다.

유주현 기자

81세 스코세이지 신작 '플라워 킬링 문' 오스카 다크호스로

마틴 스코세이지(81) 감독의 신작 '플라워 킬링 문'(19일 개봉)이 내년 3월 오스카상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수상 예측 사이트 '골든더비'에는 "두 자릿수 후보 유력"이란 기사까지 나왔다. 전통적으로 실화 영화 강세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픈하이머'(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와 양강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투자-제작을 맡은 애플TV+는 지난해 음악영화 '코다'로 OTT(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최초 오스카 작품상에 이어 두 번째 트로피를 노린다.

'플라워 킬링 문'은 석유가 솟아난 1920년대 미국 중남부 소도시에서 1인당 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오세이지족 원주민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연쇄 살해당한 실화를 다뤘다. 수십 명의 죽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이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개입하며 악랄한 범죄의 진상이 드러난다. 드

라마 '파친코'(2022)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알린 애플TV+가 할리우드 최대 규모 제작비(2억 달러, 약 2700억원)를 투자해 "원주민 사회 밖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마틴 스코세이지)를 펼치는 데 일조했다.

데이비드 그랜의 원작 논픽션도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플라워 문: 거대

한 부패와 비열한 폭력, 그리고 FBI의 탄생'이다. 2017년 아마존 '올해의 책' 종합 1위였던 이 책의 원고 단계에서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소개한 이가 제작을 겸한 주연 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다. 두 사람의 여섯 번째 협업이다.

디캐프리오의 1차 세계대전에서 다친 뒤 오클라호마에 흘러들어 오세이지족 몰리와 사랑에 빠지는 어니스트

버크하트를 연기했다. 아내와 세 아이를 아끼지만, 수완가 삼촌 윌리엄 헤일에게 휘둘러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둔한 사내다. 스코세이지 감독의 50년지기 로버트 드 니로가 헤일 역을 맡았고, '포레스트 검프'(1994)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에릭 로스도 합류했다.

"(실화를 읽은 뒤) 한쪽에는 우정과 사랑 사이의 묘한 감정선이, 다른 한쪽에는 착취와 살인이 공존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는 스코세이지 감독은 공동 각본 작업을 하면서, 50년 넘게 간직한 또 다른 원주민 문제와 관련한 '개인적' 감정까지 담아냈다. 미군이 원주민을 대항할 한 사우스다코타 원주민 보

호구역에 1974년 머무르며 느낀 원주민들의 고통, "한 줄기 햇살 같았던" 원주민 시인의 가르침을 떠올렸다고 했다.

스코세이지 감독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디테일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2019년 전통 식사를 함께하며 인사를 톤 오세이지족 사 람들이 영화의 자문·출연으로도 도움을 줬다. 몰리 역의 릴리 글래드스톤은 오세이지족은 아니지만, 원주민 출신이다.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이 영화 촬영은 '백인들에 희생된 이들을 위한 일종의 위령제'였던 것 같다. 그는 영화를 두고 "오세이지족들이 보고 느끼고 제

물처럼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라고 표현했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초 상영 당시 9분간 기립박수를 받았다. 애플TV+ 온라인 영화지만, 극장에서 개봉한다. 나원정 기자



영화 '플라워 킬링 문'(사진으로 로버트 드 니로(왼쪽부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30년만에 한 작품에서 만났다. 오른쪽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올 5월 칸영화제에 참석 한 모습. [사진 애플TV+, EPA-연합뉴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카중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김주형, 타이틀 방어 첫 성공... 벌써 PGA 3승

2002년생 김주형(21)은 골돌이를 연상시키는 푸근한 외모로 팬들이 많다. 성격도 동글동글한 편이다. 미국에서는 '툼 킴'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000년대 생으로는 처음으로 우승하는 기록을 세웠던 김주형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김주형은 1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TPC 서머린에서 열린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타를 줄인 끝에 함께 20언더파 264타로 우승했다.

경기 후반까지 무려 5명의 경쟁자가 1타 차로 추격했지만, 김주형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리드를 유지한 끝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통산 3승째를 거둔 김주형은 이날 우승 상금 151만2000달러(약 20억원)를 받았다.

1983년 창설된 이 대회는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다. 2021년 임성재(25)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김주형이 정상을 밟았다. 두 선수 모두 통산 2승째를 거둔 무대가 바로 이 대회다. 김주형은 특히 2년 연속 우승하면서 2021년 데뷔 후 처음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이전까지 이 대회 2년 연속 챔피언은 1998~99년 우승한 짐 퓨릭(53·미국)이 유일했다.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2연패 하며 110여년 만에 최연소로 PGA 투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김주형. [로이터/USA투데이스포츠]

슈라이너스 오픈 2년 연속 정상 2000년대생 첫 우승 이은 쾌거 "어려운 순간들 닦쳤지만 수궁 계속 발전하자는 생각만 했다"



김주형은 "슈라이너스 아동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여서 더욱 뜻깊다. 대회장에서 만난 많은 아이가 내게 영감을 줬는데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역시 통산 3승에 도전했던 이경훈(32)은 마지막 날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타를 줄여 함께 17언더파 공동 7위에 올랐다. 올 시즌 4번째 톱10 진입이다.

최종 4라운드는 막판까지 혼전 양상이었다. 함께 15언더파 공동선두로 출발한 김주형은 전반 버디 4개와 보

기 2개로 2타를 줄였다. 이어 파4 12번 홀과 파5 13번 홀에서 잇달아 버디를 잡아내면서 선두로 치고 나갔다.

김주형이 승리를 굳힌 건 15번 홀(파4·341야드)이었다. 그는 티샷을 307야드나 날려 그린 근처에 공을 떨어뜨렸다. 이어 깔끔한 어프로치로 온 그린했고, 약 4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함께 20언더파로 올라섰다.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같은 챔피언조에서 플레이한 애덤 헤드윈(36·캐나다)이었다. 헤드윈은 15번 홀까지

합계 19언더파를 기록하면서 김주형을 1타 차로 추격했다.

그러나 헤드윈은 파5의 16번 홀에서 보기를 하면서 무너졌다. 반면 김주형은 이 홀에서 힘겹게 파세이브에 성공하면서 5명의 2위 그룹과 격차를 2타로 벌렸다.

김주형은 나머지 홀에선 큰 고비 없이 승리를 지켜냈다. 파3의 17번 홀에선 정교한 티샷으로 그린을 공략했다. 버디 퍼트가 짧았지만, 침착하게 파 퍼트를 떨어뜨렸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도 안정적으로 파를 잡아 우승을 확정했다. 헤드윈은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면서 함께 19언더파로 단독 2위에 올랐다.

김주형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뒤 우승이 없었다. 그동안 좋은 순간도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도 있었다. 그때마다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계속 발전하자는 생각만 했다. 그래서 이번 3승째가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샷 감각이 좋아서 자신감이 있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우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어제든 우승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내 경기만 차분하게 하자고 마음먹은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고봉준 기자

축구대표팀, 베트남전 6대 0 골 퍼레이드... A매치 3연승

김민재 포문 열고 정우영 췌기골 손흥민·이강인·황희찬도 득점포 손, 복귀골 직후 퇴장도 이끌어내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꺾고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감독 체제에서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 1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A매치 평가전에서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 황희찬(27·울버햄프턴), 손흥민(31·토트넘), 이강인(22·파리생제르맹), 정우영(24·슈투트가르트)의 릴레이 골에 힘입어 6-0 대승

을 거뒀다. 지난달 13일 사우디아라비아전(1-0승)을 통해 첫 승을 신고한 클린스만호는 지난 13일 튀니지전(4-0승)에 이어 베트남까지 이기며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이전 대표팀 경기력 부진으로 이날 킥 오프 직전 관중의 야유를 받은 클린스만 감독은 최근 2경기에서 10골을 몰아치며 화끈한 공격 축구로 경기력 논란에서 비켜났다.

한국은 베트남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18승5무2패로 압도적 우위를 지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6위의 한국이 객관적 전력에 한참 앞서는 95위 베트남과 평가전을 치른 건 다



베트남전 후반 15분 한국의 4번째 골을 터뜨린 뒤 사진 찍기 세리머니를 선보이는 손흥민. [연합뉴스]

음 달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국은 싱가포르(157위)와 1차전을 치르고, 중국(80위)과 2차전을 갖는다.

초반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한 한국은 전반 5분 만에 선제 골을 터뜨렸다. 이강인의 코너킥을 김민재가 머리로 받아 넣었다. 후반 26분엔 황희찬

이 이재성(31·마인츠)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터뜨렸다.

후반 공세는 더욱 거셌다. 후반 6분 베트남의 자책골(보민 트 룡)에 이어 후반 15분 '캡틴' 손흥민이 황희찬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한 골을 보냈다. 다리 근육 이상으로 앞선 튀니지전을 결장한 그의 '복귀 자축 골'이었다. 손흥민은 1분 뒤 부이 호앙 비엠탄의 파울을 유도해 경고 누적 퇴장을 이끌어냈고, 후반 25분엔 감각적인 패스로 이강인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튀니지전에서 A매치 1:2로 골을 몰아친 이강인은 2경기 연속 골 맛을 봤다. 후반 교체 투입된 정우영은 후반 41분 췌기 골을 보태 한국의 골 퍼레이드 대미를 장식했다.

수원=피주영 기자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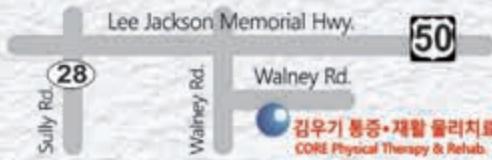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후회**

이상신 · 국종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썬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10월
구
인
광
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포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 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넌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 정규직 (Full Time) 직원
- ▶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 ▶ 초보자 가능
- ▶ 유급휴가 / 401K 지원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이메일 또는 전화로 면접 및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넌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Diamond Nails Spa 매매

(Vienna VA 소재)

- ▶ Sale Price: \$290,000
- ▶ Weekly's Sales: \$6,300 (평균)
-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 SQF, 1층, 2층)
- ▶ 원하시면 건물 매매 가능.
-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 파트너십으로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비 동결)
- ▶ 노던 버지니아의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

• 주 소 :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연락처 : 571-421-086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양생활안내 Classified

중양일보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구인 /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hr@worldbankcard.net
▶703-333-31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합니다.
*신입 환영/경력자 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애난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 ceo@toptravelusa.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베네핏 제공
보험 에이전트 유경험 45k-50k
coverworldgr@gmail.com
▶571-232-0702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콜센터 업무 (고객 응대). 초보자 가능
한국어 및 영어 가능자 유급휴가, 건강보험
(Dental, Vision 포함), 401K 지원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애난데일 부동산회사-리셉션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3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fastfixusa@gmail.com
571-633-0766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구함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vacacct1986@gmail.com

유 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 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o.kr
josephleejtbco@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a@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토어구인
매장 스태,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트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 Full / part time - 컴퓨터/영어필수
-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영업) 사원 구함.
성실히 함께 하실분 환영. 최고의 우대
시장전망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855-3565
Ph. (703)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 각종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 페이스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넛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r@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옵션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닥터오피스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분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Computer skills are required
근무시간 월요일~ 금요일 9AM to 5PM
resume.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트레이닝,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
금요일 Nurse Practitioner와
리셉션니스트 풀/파트타임 구함
703-505-0204

메릴랜드 치기공 구인
세라믹파트 경력자 & 딜리버리 기사구인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오피스에서 오래 일 하실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첼트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t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오피스 직원구함
센터빌 지역, Full/Parttime /한/영 가능
Dental Assistant/Front desk
centrevilledentalcare@yahoo.com
703- 830- 9990

치과 어시스트 / 리셉션니스트 구함
Bilingual (Fluent in English)
Full Time/Part Time available
Rockville, Gaithersburg Area
301-926-9692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Host / Hostess (한국어 / 영어)
14215-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703-517-6439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 호스트/호스테스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애난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력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Cafe June 에서 샌드위치 짜실분
엘리콧시티, MD
443-310-9247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코리아 BBQ 레스토랑
서버 (파트타임, 풀타임) 구함
443-953-1127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 맡아주실분 구함
니다 영주권스폰도 해드립니다.
문의사항 (703-473-6022) 연락주세요.

첼트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아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 홀 담당하
실분 찾습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시간 11시 - 8시반까지
703-473-6022

오피스텔 그릴샌드위치 짜실분 경력자 우
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로얄 오피스단지
703-740-7344

케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움, 유/무 경력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첼트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 스시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첼트리, 현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 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델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첼트리 지역 식당 캐쉬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일 11시 - 8시반)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하실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캐리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절가능
19불. 캐튼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703-772-1800

엘리콧 시티 롯데안 일식당 Ikkyu에서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 가능
410-203-9919

매나세스 코스코 앞 아이스크림 가게
주말 주중/ 풀,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
703-463-4004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 (메세지 남겨주세요)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세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하실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시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요망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알렉산드리아 지역 이발사 구합니다.
703-408-1119

애난데일 해와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 리셉션리스트(파트타임 가능)
703-750-2424 메세지 남겨주세요!
703-717-8256

생활안내 광고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세탁/얼터레이션>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톨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금토.
410-926-3200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스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력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 처치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함께 성실히 일하실분을 모집합니다.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조지아 한인타운 돌루스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경력자) 구함
678-417-1567 문자요망
678-557-1567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5805 / 정

Mill Work Installer 구합니다
캐비닛 & Pennel (wood work)
헬퍼 및 기술자 구함 (공고인 환영)
571-233-7982

리모델링 과 토치누핑 잘하시는 목수 구함.
443-542-1200

유경험 플러밍, 파트타임, 하이페이
703-625-0082

가구와 캐비닛 공장에서 일할분
Stain & Paint Finish Worker, 안정된 수입,
성실한분. www.hdplusinc.com
703-859-2499

집수리에 관한 모든 일 (리모델링/수리/택)
20년 경력의 핸드맨이 작은일도 확실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상담 환영)
571-531-1019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에버그린 헬스 케어 매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홈헬스 HR/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빌딩 청소하실분 파트타임 남여 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력자 우대
703-725-1233

메릴랜드에서 입주하셔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력자 우대, 숙식하실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에쉬번 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씩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첼트리 지역 밤에 청소하실 부부팀 원함
443-966-5196

가구장사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571-274-5264

수퍼맥스(스털링, 버지니아)
웨어하우스에서 Seafood 및 Supply
구매하실분 모집.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마이클 임 703-665-2162

인쇄달력회사/마케팅을 함께할 직원구함
571-242-3736

Part time Tysons Corner/Great Falls, VA
애들 등교, 학교 도와주고 간단한 식사
도와 주실분 전화주세요. 운전 필수.
917-886-1884

빌딩 청소 및 잡일 월-토 (7AM-12PM)
위치: Oxon Hill, MD
240-903-0777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타운하우스 (Manassas Park) \$2,100
방3, 화장실3, 리모델링 부엌, 나무마루,
Fenced Back Yard, 교통편리
▶703-477-3114

타운하우스 비엔나 \$3,400. 방3, 화장. 1/2
차고 2, Walkout Basement, End Unit.
Updated Kitchen, Fenced Backyard. 나
무마루, Deck. 메트로역 바로 앞. 즉시 입주!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주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장. 3. 쇼핑몰, 교통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장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팡니다!

직접 농사지은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보통맛 · 매운맛

703-470-5238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에쉬번방 4개 화 3개 벽돌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돈메트로 옆타운홈 \$2,850
방3, 화2 1/2, 차고 2, 새부엌,
새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타운홈, 방 3, 화4, 1952sqft,
2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센터빌H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4, 화장실 4, 차고 2
571-882-4473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 3, 화 2, \$1900 New
paint, dishwasher,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

〈콘도 렌트〉

콘도(Alexandria) \$2,600 / 즉시 입주 가능.
방 2, 화 2, Elevator, 5층, 최고급 콘도,
나무마루, 리모델 부엌 & 화장실,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2005년 새콘도(Fairfax) \$2,100 / m
방 2, 화장실 1, Metro 역 걸어서.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SS Appliances & Granite
Counter Tops, Washer & Dryer
▶703-477-3114

콘도(Annandale) \$2,100/m
방 2, 화 2, 넓은 리빙룸, 숲이 보이는 넓은 발코
니, Washer & Dryer. H-Mart 가까운 동네.
▶703-477-3114

애난데일H마트 입구 콘도, \$1500
방 1, 화 1, 파킹 2. 12월 초 입주
703-268-8669(처음은 문자)

10월 1일 / 초순경 ANNANDALE의 콘도
같이 입주할 분(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

헤이마켓 콘도 차고 1, 방 3, 화 2/1, 2215sq
703-489-6926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 1 렌트
▶703-470-5238

애난데일H마트 옆 싱글하우스
출입문 별도, 아래층 전체 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1, 세탁실
703-350-2690 / 문자: 703-350-2853

싱글룸 방 1 렌트, 조용 / 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가구완비/인터넷(유료)
301-655-3248

실악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 분
방 1, 화장실 1, 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룸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 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 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원룸식 방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홈 지하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 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 가능
페어팩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

원룸 스타일. 욕실,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방세 농음, 개인집 방 1개 욕실 샤워 별도
엘리베이터 롯데 8분
301-326-5303/702-622-8853

애난데일 예촌 앞 2층 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

버크 월마트 도보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 1, 화 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

495, 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필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시지 부탁합니다

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 GMU, 495, 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넓고 조용한 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 취사가능, 넓은 방, 거실 쓰실 분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포함,
교통 편리함 (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 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 싱글 지하 방 2, 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문 별도, 주차, 즉시 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 2층 방 / 주차 가능 / 인터넷 /
가구완비 / 냉방고 별도 / 여자분 환영 /
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 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 1, 욕실 1, 간단한 취사, 주차 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 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 스테이션, 방 1, 화 1, 간단한 취사,
주차 가능, Walmart 근접.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 출입
방 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

조지메이슨 대학 근처 렌트
웨어팩스H마트도 가까이. 반 지하 지하실
출입문 별도, 부엌에 싱크 새로 만들.
세탁실 있음. 조용하고 안전한 개인주택
703-389-4615

지하전체 간단취사 가능. 주차, 인터넷, 유포.
GMU 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룸 워크아웃 지하 큰방.
풀 베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 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 근처
조용하며 교통 편리, 작은 방 \$350
301-379-96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방 렌트
495/395 5분거리
703-750-2795

페어팩스 몰 근처 싱글룸 1층 출입문 별도,
방 2, 큰 거실, 큰 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

395, 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 타운하우스
1, 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 하고 리모델링한 지하 각각 렌트 가능.
취사 가능.
703-403-8918 (Lee)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

페어팩스 지역 도보 3분거리 GMU 대학교 근
처 밝고 넓은 거실 방 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

페어팩스 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옷장 방 1개 화장실
주차 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

센터빌 조용한 싱글룸 렌트
작은 방 1 화장실 1
학생 &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환영
703-909-1609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 새 카펫, 화
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문자
571-243-7027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화장실, 샤워,
인터넷. 출입문 따로 되어 있음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남자분 한분 원함.
703-405-9005

〈사무실 / 점포 렌트〉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 (Fairfax) \$395,000
방 1 * 큰 Den. 화장실 1. Metro 역 걸어서.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Laminate Floors. New Carpet. New Paint.
New Washer & Dryer. 편리한 1층 (출입문
거리 & 건물)
▶703-477-3114

Centreville \$499,900 타운하우스 방 4
3 1/2 Brick Front. 나무마루. New paint.
Updated for Washier, Stove. HV/AC,
Water Heater. Open Floor plan. 교통 편리
▶703-477-3114

Alexandria 콘도. 방 2 화 2 호수가 보이는 편
안한 동네, 밝고 환한 콘도 Washer & Dryer.
넓은 부엌. Counter Tops. 1층. 넓은 Patio.
Costco & Walmart 가깝음. \$229,000
▶703-477-3114

Centreville 콘도 방 2 화 2 Fire Place.
Washer & Dryer. Tops Floor. Three Ceiling
Fans. 넓고 편안한 Balcony. 교통 편리. Lotte
Mart 가깝음. \$299,000
▶703-477-3114

콘도 애난데일 \$400,000
방 2 화장실 2. 1 Car Garage, Top Floor.
밝고 깨끗한 집. New Carpet, Updated
Bathroom. 새 페인트. 나무마루, New HVAC.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숲이
보이는 Balcony. 1,116 sf 우리 아메리카는
행군 처차 3대 파킹할 수 있음.
▶703-813-8949

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년
산 방 3 화 2 1/2 층 2,252 sf 2 Level Bump-
out. 9 Feet Ceiling. Walk-in Closet. Valted
Ceiling 있는 안방. 넓은 Recreation Room.
3 Level. Bay Window. \$549,000
▶703-477-3114

콘도 센터빌 \$325,000
방 2, 화 2, 1038sf 잘 관리되고 Update 된 집.
SS Appliance,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구조, New Window & Dryer. 숲과
파킹장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Lotte Mart 근처
▶703-813-8949

센터빌 콘도 전체 렌트, 1층, 전체 마루,
방 1, 화 1, 풀 사이즈 세탁기, H-Mart 근처
▶703-813-8949

Centreville 타운하우스 \$559,900
방 3, 화 3 1/2 1,452 SF
Finished Walkout Basement.
Updated Kitchen, Hardwood Floors.
탁트인 부엌과 리빙룸. Deck
▶703-813-8949

찾기 힘든 독점 리스팅
오픈 하우스 10/28-29(토, 일) 오후 1-3 교
통 좋고 예쁘게 잘 관리된 3레벨 싱글하우스.
비엔나, 옥톤 고등. 방 5, 화 4.5 (1.225 M)
문의: 703-850-3638
(성함과 텍스트 남겨 주세요)

Haymarket, 럭셔리 타운홈 세일
\$620,000. 2car, 방 3, 화 3.5,
Walk out Basement, 마켓에 아직 안 나온 집.
571-567-5797

센터빌 2층 타운홈 \$434,900
방 3, 화 2.5, 센터빌 하이, 리버티미들 학군
703-489-6926

〈부동산/상업용 매매〉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 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 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여명
- 타이어 1분 판매 65% 마진
- 장비 10여만불 보유
*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1/2 day)
*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 \$780,000. 6일. 용자. 부부 운영 중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캠포함)
좋은 지역 & 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 안 한층식 8만불 매매주세요.
703 424 6451

버지니아에 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
순수 수입 월 \$3,600 / 매매 6만 / 스타크 8천
443-472-8820

상업용 건물 / 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 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 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 분들 연락바람.
703-608-0522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 장소
703-850-3714

마켓 내 상업용 중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랜드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 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킵) 240-381-1615

기타

차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 703-569-8000

버크레이크에서 밀서레이크까지...
일요일 아침 8시 버크레이크 헬터 C에서
모여서 밀서레이크까지 오솔길 6.5 마일
(2.5 시간 소요) 걷는 운동 모임.
숲속길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 환영.
▶703-939-5223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맛있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
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 지점 (예촌 2분 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은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703-470-5238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요정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 R \$600
2) PXG 081 1x+PROTO
10.5도 / R \$170
301-717-7960

Falls Church VA 파크 안 최고 명당 자리 매매
443-355-7700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아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 시간 조율.
703-489-6567

〈중고품/기타 매매〉

Car for Sale
2014 Chevrolet Sonic LT Auto
75,000 Miles, \$4,500
▶연락처: 703-489-6926

2012 Santa Fe SUV Silver 82,000 mile
Good condition \$10,500
703-350-1986

4인용 고급 식탁, 세탁소용 주키 8700
(USA) 햄 미싱 매매
240-475-4166

물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저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 x 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덴탈랩 장비와 재료 총 \$500
240-423-9968

집안에 모아둔 남녀 금, 다이아반지,
시계, 목걸이 및 팔찌 등 사들임. 문자요망
240-718-8050

〈건축/페인트〉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 견적
▶703-395-005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 EV 전기자동차
-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꿈과 열정에 힘입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닝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l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Barry: Good evening. We have a reservation for two at 8:00. The name's Loftus.

배리: 안녕하세요. 8시에 로프터스라는 이름으로 2명 좌석 예약했는데요.

Maitre'd: Yes sir. Let me check for you.

지배인: 예 손님.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Rachael: They're packed in here like sardines. I'm glad we made a reservation.

레이철: 이 식당은 꽉 찼네. 예약하기를 잘 했지.

Maitre'd: Excuse me sir. When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지배인: 죄송합니다 손님. 언제 예약하셨죠?

Barry: Three days ago. What's the problem?

배리: 3일 전에 했습니다. 왜 그러죠?

Maitre'd: There must be a mistake.

지배인: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Barry: That's impossible. I made a big deal about it because it's our anniversary.

배리: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 수선을 피했는데.

at the most: 기껏해야, 많아야

(Barry and his wife Rachael are waiting to be seated in a fancy restaurant...)

(배리와 아내 레이철이 고급 식당에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

Maitre'd: I'm sorry but I can't find the name "Loftus". Could it be under another name?

지배인: 죄송합니다만 '로프터스'란 이름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이름으로 예약하셨을 수 있나요?

Barry: No! I'm trying not to lose my temper. When will we be able to get a table?

배리: 아뇨! 화를 낼 수도 없고. 언제쯤 자리가 나겠어요?

Maitre'd: Fifteen minutes at the most sir. I'm terribly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지배인: 길어야 15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손님.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 packed like sardines: 좁은 장소가 꽉 차다.

"We were packed like sardines on the train."

(우리가 탄 기차는 꽉 찼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음 (5)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잘 따름. 부부 사이의 화합하는 도리 (8) 날지는 못하지만 몸무게 약 155kg으로 시속 90km까지 달릴 수 있는 새 (9) 하늘과 땅 사이 (10) 피륙이나 종이 따위를 벌에 찢거나 약품을 써서 희게 함 (12) 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 사람. 수십 명의 ~가 잔치에 쓸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15) 유교 사상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함을 이르는 말 (16) 소장의 일부로 위의 유문에서 빈창자에 이르는 말굽 모양의 부위 (19)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20) 원통 모양으로 된 물건의 아가리의 지름 (22) 말라서 죽은 나무 (23) 배를 대어 사람과 짐이 물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 (24) 병아리보다 조금 큰 닭의 털과 내장을 없애고 통째로 삶은 음식 (26) 남김없이 다 팔림 (27) 일흔 살이 되는 해의 생일잔치

세로 열쇠

(1)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씌 (2) 둘 사이의 다툼을 틈타 제삼자가 얻는 이익 (3) 언니의 남편 (4)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안전하고 정숙한 여자 (6)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을 처음 간행함 (7)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 증권. 추적 결과 이 ~는 부도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11) 글 짓는 솜씨를 겨루는 대회 (13) 유아에게 젖을 먹여 기르는 기간 (14)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 이 ~ 종교에 물이 들면 부모자식도 몰라보게 된다 (15) 적도를 경계로 지구를 둘로 나누었을 때의 남쪽 부분 (17) 매우 더디어서 일 따위가 잘 진척되지 아니함 (18) 깊이 잘 생각함 (21) 일정한 거리를 헤엄쳐 그 빠르기를 겨루는 경기 (22)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함 (25) 닭의 갈비. 버리기에는 아까우나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 요즘에는 닭갈비를 파는 음식점도 많이 있어서 좀 헛갈린다 (26) 연료가 탈 때 나오는, 그을음이 섞인 연기

스도쿠

		8			6		2	
	5					3		4
	7	9					1	
	8			1	3			
			9		8			
			4	7				5
	1					6	3	
9		5						7
	4		6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8	5	2	6	9	3	4	7
2	2	4	1	3	8	5	9	6
6	3	9	5	4	2	2	1	8
8	5	1	2	2	4	9	6	3
3	4	2	8	9	6	1	2	5
9	6	2	3	1	5	4	8	7
5	1	8	4	2	3	6	7	9
4	9	3	6	8	2	2	5	1
7	6	9	6	9	1	8	3	4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 month year	카드 유효 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구인
 76 Station
 with C-store in Running Springs (SB mountain) needs Cashiers/Asst.Mgr. Pay \$17-\$25/hour (909)649-2631
 하숙·렌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방고압비 Income Limit (색선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중앙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개인/비즈니스/용자전문
 -GOOD 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 환영
 -크레딧카드 한도 확장 분업체 전 연락요망
 -크레딧 안좋은신분 교정/빌드업
 -신용카드 한도만큼 증액해 현금 마련
 -역이민 계획중이신분
 -가계 폐업 고민 중 이신분
 25년 경험 **중부컨설팅**
 213.514.1244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Line of credit **기계장비론**
 간단하고 빠른 용자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SBA 7(a) 용자** **기계장비 담보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10년 상환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림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품은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chunjongsansam.com

심마니 장석훈의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眞品**

213.388.1234 | 718.879.2340
 LA점 3908 Wilshire Blvd, LA, CA 90010 (구 대륙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뉴욕점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뉴스 통합 모바일 App
 (213)368-2532

Up to 40% 할인 혜택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위산역류 통증·뱃살 불면증 어지럼·두통
항문폴립 요실금·전립선 이명·치질 냉증·변비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상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기력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엘에이) 213-675-6877 (플러턴) 213-255-1410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품 산삼음욕단 도인력사관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기적의 영양제

VC 2000 천연항염, 진통 혈관 탄력
 M3 혈액해독, 숙면 기력회복
 로얄 항바이러스 면역력강화
 MEGA 뼈, 골수 영양 면역력 강화
 Golden Water 심장, 뇌 현전 용해

SELLA CARE® 본사 대표 번호 (213) 435-9600

본사(LA): 213,435,9600
 다운타운 샌페드로: 213,765,9677
 LA코리아타운플라자: 213,739,8874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시온약국: 213,344,9730
 LA 한국마켓 약국: 323,464,3925
 우리약국(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LA별론 갤러리아마켓 약국: 213,388,4100
 현대약국(웨스턴+5가): 213,480,3322
 LA시온마켓 엄마스 약국: 213,739,3030
 올림픽 갤러리아마켓 약국: 323,733,7200
 LA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벨리 소망약국: 818,832,2757
 플러튼 내치양양센터: 714,690,0120
 부에나비크 지구촌약국(비아트네): 714,228,921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 약국: 562,402,6972
 웰빙건강 허와이언가든: 562,631,4264
 세리토스 패밀리 약국: 562,402,0500
 부에나비크 플러튼 약국: 714,992,4935
 가든그로브 주영아울렛: 714,944,8993
 시온헬스: 949,350,5023

패밀리케어: 714,521,3535
 비치약국: 714,739,8811
 D.B 제이제이약국: 909,595,4003
 텍사스: 214,998,8861
 유태: 801,888,6775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뉴욕/뉴저지: 201,310,8391
 시카고(알바니약국): 847,699,1511
 시카고 서울마켓(헬렌): 224,406,0337
 조지아(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플로리다/NC/SC: 770,457,1717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하와이 훌삼나라: 808,952,9966
 하와이 생약촌: 808,381,1909
 캐나다(밴쿠버 롯데건강 백화점): 604,872,1669

한국: 010,4399,6247
 서울해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서울해동 서울대병원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본사 대표번호 (213) 435-9600

빠른! 비즈니스 펀딩

비즈니스 오너에게 드리는 특혜

- 24시간 안에 승인
- \$5,000-\$200,000
- 99% 승인
- 저렴한 가격

크레딧 체크 없이 2일 이내 펀딩

지금 수지 와 통화하세요!

www.QMadvance.com
 e mail : suzie@QMadvance.com

QM Advance T: 929-207-6710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